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2351.31	코스닥	696.05
	(+1.12)		(-5.16)
금리	3.556	환율	1244.70
	(-0.021)		(+1.20)



LG엔솔, 포드서 러브콜... ‘수율 문제’ SK온, 숨고르기

배터리社, 해외 합작공장 향방은

SK온, ‘포드 튀르키예 공장’ 중단 자금시장 위축, 수율 차질에 부담 LG엔솔, 포드공장 새 파트너 유력

연초부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완성차 업체 포드가 SK온과 협업을 사실상 접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다른 수급처와 손을 맞잡기도해 이슈가 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당초 포드는 SK온, 코치 등과 함께 튀르키예에 JV를 세우고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3개사는 튀르키예 앙카라

인근 지역에 연간 30~45기가와트시(GWh)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기차 납품 기준으로는 40만~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르면 2025년 가동 예정이었다. 3사의 총 투자 금액은 3조~4조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하지만 SK온과 포드의 합종연횡은 미뤄지게 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본격화와 자금시장 위축이 이유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SK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율을 맞추기 힘들다는 예상”이 내부에서 나왔다면 더 진전시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온 관계자는 “MOU 후 튀르키예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 협의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 중단 여부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력사 중 하나인 코치도 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포드나 SK온과 배터리 협력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상황은 사실상 건설 ‘중단’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지만 SK온과 포드의 협력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포드 자동차와 SK온은 미국 내에서 2개 공장을 짓고 있으며 헝가리 공장 증설도 진행 중이다. 미국 미시간주(州)에서 포드가 생산하는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은 SK온 맡고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의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



지난해 SK온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 터키 대표 기업 코치와 함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합작법인(공장)의 대략적인 위치. 하지만현재 해당 공장 건설은 중단 위기에 놓인 상태다. /SK이노베이션

신에 따르면 양사는 1월 말이나 2월 초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공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튀르키예 합작공장 계약은 아직 확정된 게 없

다”고는 말했지만 업계에서는 SK온의 대안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1 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5면>

/사진공동취재단

흑한기 반도체 ‘바닥’ 임박 삼성 ‘치킨게임’ 승자 되나

상반기부터 메모리 재고 감소 기대 가격 하락세 완화, 수요 증가 예상 中봉쇄해제·美경제지표도 긍정적

반도체 시장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해도 시장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조만간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바닥’이 임박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치킨 게임’으로 시장 영향력을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한달여만에 다시 6만원대로 올라섰다. SK하이닉스 주가도 7만원 중반대에서 급등해 8만원 중반까지 회복했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4조원대로 기대치를 크게 밑돈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유력하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는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럼에도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상반기부터 재고가 줄어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과거 메모리 다운사이클 당시 ‘재고 정점’ 직전 분기부터 주가가 반등했다고 소개하며 관련 주 매수를 추천하는 보고서를 새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트렌드포스는 1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전분기 대비 13~18%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 비수기에 더해 모바일과 서버용 D램 등 주력

제품 수요가 여전히 낮아 한동안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최신 GPU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와 GDDR6 16Gb 확대 등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에도 주목했다.

호재도 기다리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DDR5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비중을 10%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인텔이 10일(현지시간) 4세대 서버용 CPU를 발표하면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업계 D램 재고도 5~7주 정도로 떨어진 상황,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도 본격화하면서 재고 수준은 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분기가 ‘재고 정점’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중국 봉쇄 해제에 이어 미국 경제지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금리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에 이어 SK하이닉스도 감산에 돌입하면서 공급 불균형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년에 비해 짧은 ‘치킨게임’에서 삼성전자는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이미 재고를 소폭 줄였다고 추측했다.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시장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4면에 계속〉

/김재웅기자 juk@

승계작업 속도내는 식품업계, 오너 3세 전면에

식품업계 오너 3세들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세대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리온그룹은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장남인 담서원 경영지원팀 수석부장을 경영관리담당 상무로 승진시켰다.

담상무는 1989년생으로 미국 뉴욕대를 나와 중국 유학을 거쳐 카카오펀드프라이즈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오리온에 경영관리팀 소속 수석부장으로 입사했다. 이번에 약 1년 6개월 만에 경



담서원

오리온 경영관리 상무



이선호

CJ 식품성장추진실장

영관리담당 상무로 승진하며 기획, 사업전략 수립, 신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담 상무가 인수합병이나 해외 사업성을 검토하고 전제적인 그룹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CJ제일제당도 2023년 임원인사를 통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를 글로벌 식품 사업을 이끄는 식품성장추진실장으로 선임했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 심상정 “尹정부, 시중은행의 대출 2% 서민 대출 할당 추진해야” /사진 뉴시스
▲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50m 사이두고 ‘맞불집회’

▲ 與, 이檢 출석 지도부 동행에… “개인 비리에 민주당 위세”
▲ 민주, 대통령실 “나경원 압박”에 “원하는 당대표 지명하라”



▲ 나경원 저출산위 사의… 대통령실 “들은바 없다”
▲ 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중국인 입국규제에 ‘보복조치’ /사진 뉴시스

尹, UAE 첫 국민방문… 원전·에너지·방산 ‘세일즈’ 외교

尹 대통령, 6박8일 일정 14일 출국
순방에 100여개 경제사절단 대동

오는 14~17일 UAE 국민방문
18~19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일정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참석
정부-민간 연대 협력방안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이자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민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례 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6박 8일간 세일즈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오는 14~17일 UAE를 국민방문하고, 곧바로 스위스로 이동해 18~19일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이번 해외순방에 1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을 경제사절단으로 대동해 전방위적인 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일즈 외교에도 나선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에 대한 키워드로 ▲UAE ▲투자유치 ▲글로벌 연대 등을 꼽으며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순방에 동행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UAE는 우리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중인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 국가로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펼칠 최적의 파트너”라며 “100여개사의 경제사절단을 동행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 주도로 구성됐고, 참가기업의 70~8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외에 방산, ICT, 게임 콘텐츠, 스마트팜, 관광 서비스 등 유망 기업도 다양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980년 UAE와 수교 후 처음으로 UAE를 국민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민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 방문을 비롯해 두바이 미래비

전 포럼 등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양국 간 14회 정도 정상 간 상호 방문은 이뤄졌으나 국민방문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최고 국민방문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첫 순방국이자 중동 첫 순방지인 UAE는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다수의 MOU 체결을 통해 한-UAE 관계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UAE에서 일정을 마치는 윤 대통령은 17일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해 동포간담회를 갖고 18일에는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다보스로 이동해 국내외 주요 글로벌 CEO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참석을 통해 ▲경제안보 외교 ▲세일즈 외교 ▲공공 외교를 입체적으로 수행하며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과 기술 경쟁력을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CEO들과의 오찬을 함께 하며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대 협력방안 및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국내 기업은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참석하고 해외 기업에서는 인텔, IBM, 쉘, JP모건, 소니 등의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공 외교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분열된 세계에서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질서 구현, 국제 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후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해 석학들과의 과학기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글로벌 보폭 넓히는 재계 총수들… 이재용·최태원 등 다보스 간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 회장
대통령 순방일정 맞춰 이번주말 출국

대기업 24곳, 중소·중견 69곳 등
에너지·방위사업 등 사절단 꾸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의 경제사절단으로 동참한다. 이후 글로벌 경영 현안과 철학을 공유하는 다보스포럼도 참석할 예정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최태원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회장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이번 주말경 UAE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국내 기업의 UAE 및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민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조성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2월 UAE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호기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오랜 기간 체류 중인 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직원을 격려한지 한 달여만에 다시 UAE를 방문한다. 삼성물산의 현지 원전 프로젝트 외에 삼성엔지니어링도 UAE의 2조5000억 원 규모 천연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입찰해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K도 중동에서 건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부문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신흥시장으로 급성장중인 중동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중동 시장은 정의선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챙기는 곳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두바이에 제네시스 첫 전

시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UAE 순방 경제사절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 24곳과 중소·중견기업 69곳, 경제단체·협회 조합 7곳 등 총 100개사가 속했다. 업종은 ▲에너지·인프라 건설 ▲방위 산업 ▲ICT ▲게임 콘텐츠 등 양국 산업 협력이 활발한 분야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포함했다.

참석 주요 인사는 구자열 무협 회장을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

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 정의선 HD현대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도 재계 총수들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UAE 경제인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마련한다.

이어 재계 총수들은 오는 15~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도 대거 참석할 방침이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 모여 주요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회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에는 취소됐고 2022년에는 한차례 연기돼 5월에 열렸다.

이번 다보스포럼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정의선 HD현대 사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출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다보스포럼에 거의 매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부산엑스포 공동 유치위원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열리는 ‘2023 한국의 밤(코리아 나이트)’을 진행한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 총수들이 다보스포럼 등에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며 “글로벌 경영 현장에서 신년 경영 구상을 구체화하고 세계 경제 흐름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경상수지 -6.2억 달러… 3개월만에 ‘적자’

한은, 2022년 11월 국제수지
누적 경상수지 전년 대비 70% ↓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6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선박,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2년 1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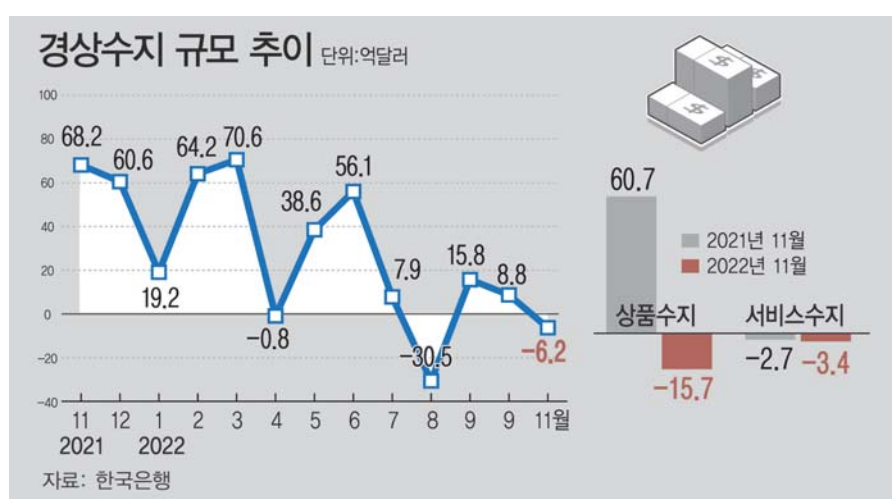
지는 6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30억5000만 달러 적자) 이후 3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흑자를 유지하다 지난해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곧바로 흑자로 전환했지만 8월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9~10월에는 불안한 흑자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

상수지는 243억7000만 달러로 전년(822억4000만 달러) 대비 70% 감소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15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0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76억4000만 달러 줄었다. 수출이 518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수출은 지난 9월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나유리 기자 yul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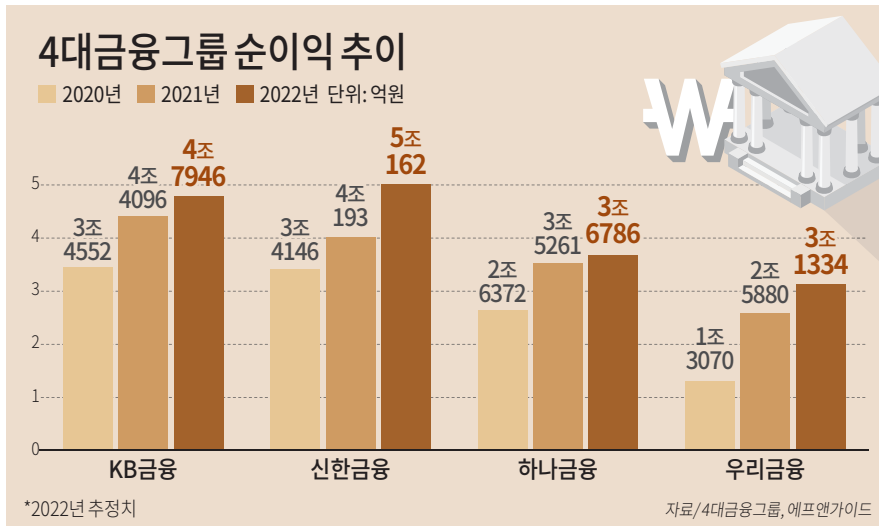
4대 금융지주 ‘역대급’ 실적… 신한, 5조클럽 입성 ‘코앞’

이자급증에 연간순이익 17조 전망
지난해 순이익 대비 14.3% 증가
비은행 리스크 최소화, 대응과제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커지면서 4대 금융지주의 연간순이익도 17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신한금융 그룹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한 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 연간 순이익 5조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 전망치는 16조6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순이익(14조5430억원)과 비교해 14.3% 증가한 수준이다.

◆ **신한금융 ‘순익 5조클럽’ 입성하나**
특히 신한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5조162억원으로 전년(4조193억원) 대비 2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1년 신한금융은 순이익 4조193억원을 달성하며 4조 클럽에 입성했다. 1년 만에 1조원을 늘려 리딩 बैं크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신한은행의 희망퇴직비용 2000억원과 신한투자증권의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관련 예상손실 1400억원이 추정돼 순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한은행이 소호를 제외한 기업대출을 견조하게 늘리면서 NIM개선여력을 확보했고, 지난 3분기 신한투자증권의 사옥매각 이익이 버퍼역할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 전망치는 4조7946억원으로 전년(4조4096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KB금융 또한 2020년 순이익은 3조4146억원, 2021년 4조193억원에 이어 최대실적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지난해 순이익이 각각 3조6786억원, 3조1334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우리금융과의 차이는 5452억원으로 줄며 올해 3·4위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경희 SK증권 연구원은 “2010년대

초반 건설, 해운, 조선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 당시 우리금융지주는 타금융사에 비해 부실대출이 많이 늘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며 “향후 가장 문제가 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우리금융은 약 2조5000억원(그룹 전체 신용 익스포저의 0.5%)으로 타금융사에 비해 신용위험이 높지 않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023년 성장세 둔화…은행 마진 ↓·비은행 부실 ↑**

다만 금리인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금융사의 성장세는 올해 들어서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순익을 담당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마진이 줄고, 비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만큼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예금금리만 올리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은 정기에 금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은행은 극심한 NIM 축소를 경험한 바 있다.

아울러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되면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비은행 PF 대출잔액은 109조8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8년에 비해 77% 증가한 수준이다. PF대출 연체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여전사의 연체율은 지난 2020년 말 0.2%에서 지난해 9월 0.9%로, 저축은행은 같은기간 1.2%에서 2.4%로 높아졌다.

김재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은행들의 부동산PF는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은행부문은 리스크가 큰 자산이 많아 향후 손실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까지 비은행이 금융지주의 실적개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비은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대응과제다”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량 채권 인정받은 포스코… 美 20억달러 채권 발행 ‘역대 최대’

자금 조달·성장 투자 재원 확보
국내 기업 첫 美 달러화 공모채

포스코가 2023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자금 경색으로 인한 부실 우려를 차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게 됐다.

포스코는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달러화 채권 발행에 나서 3년 만기 7억달러, 5년 만기 10억달러, 10년 만기 3억달러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억달러 규모 3개 트랜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금리는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미국채 3년물은 +190bps, 5년물은 +220bps, 10년물은 +250bps의



포항제철소 전경.

유리한 가산금리로 발행된다.

포스코가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지난해 12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의 기

준금리 50bps 인상 단행 직후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국내 기업의 미국 달러화 공모채로, 금융시장 변동

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우량채권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

포스코는 작년 7월 10억 미국 달러화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으며 이번 20억 달러 발행을 통해 국내 외화유동성 공급 및 대외신인도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이번 포스코의 가산금리는 올해 해외 채권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 5월에 2012년 국내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는 3조 97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으며 원화 7000억원 무보증 공모 사채도 발행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연이어 원화 및 외화 채권발행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추가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채권발행에 앞서 지난 1월 3일부터 8일까지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지에서 70개 이상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On-Off Line) 로드쇼를 실시하여 글로벌 철강 투자 계획과 성장전략 및 포스코의 우수한 신용도를 적극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CJ제일제당, 해외사업 확장에 이선호 실장 역할 ‘관심’

≫ 1면 ‘승계작업 속도내는’서 계속

신상열 농심 상무, 초고속 승진

CJ제일제당은 올해 해외사업 확장과 FNT(식품·영양 기술) 사업부문에 집중한다. 이선호 실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라면업계의 경우 농심과 삼양식품이 승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 신상열 구매 담당 상무는 2019년 평사원으로 입사한 뒤 초고속 승진했다. 식품 제조 기업에서 구매 담당은 산업 구조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 업무인만큼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

배적이다.

신상무는 1993년생으로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2019년 농심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해왔다. 농심 창업주인 고 신준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농심 주식 35만주 중 20만주를 상속받기도 했다. 현재 원자재 수급 및 협력업체 관리를 맡고 있다.

삼양식품의 오너 3세 전병우 이사는 2019년 해외사업본부 소속 부장으로 입사해 빠르게 내부 임지를 쌓았다. 그리고 지난 6월 이사회를 통해 삼양식품그룹 계열사 삼양에니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삼양식품의 글로벌 브랜딩 구축 및 캐릭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뚜기에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장남 함윤식 씨가 경영지원팀에서 과장으로 근무중이다. 체계는 함윤식 씨가 오�뚜기 경영을 승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오�뚜기 지분율은 2.17%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와 환율이 올랐고,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지 오너3세들의 경영 능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경영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내면 리더십을 인정받아 승계를 앞당길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엔솔 배터리, ‘머스탱 마하-E’에 탑재

(포드)

≫ 1면 ‘배터리社, 해외 합작’서 계속

지난해 방한한 집팰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또 포드에 배터리를 대규모로 공급해온 핵심 협력사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포드의 머스탱 마하-E에 탑재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7월 포드 요청으로 폴란드 공장의 포드 공급 배터리를 확대하고자 폴란드 생산라인을 기존 대비 두 배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배터리 공장을 계획에 맞춰 짓

는다고 무조건 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같은 기술과 배터리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 공장에서 작업을 해도 만드는 사람이 다르고 완전한 자동화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수율을 국내처럼 맞추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터리 공장들이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하며 자동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자동화의 꿈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이다. 결국 SK온도 수율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폴란드 공장을 2017년 준공한 뒤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수율 안정화를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취업자 증가폭 간신히 30만명대… 29세 이하는 넉달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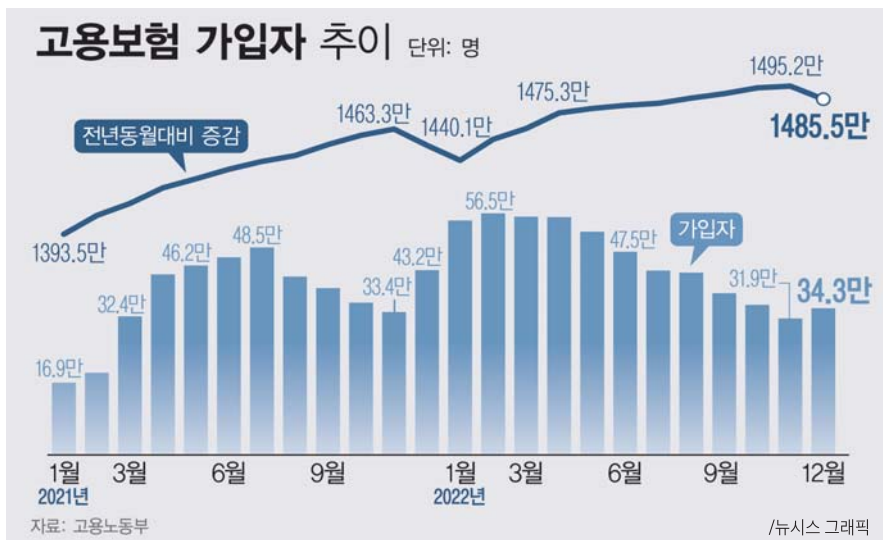
고용부, 12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1485.5만명 가입, 2.4% ↑
공공행정 취업자 감소폭 커진 영향
서비스업가입자 전년비 24.5만명 ↑

작년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4만명으로 가까스로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9세 이하 취업자는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연초에도 경기 둔화로 인한 일자리 한파가 매세워 취업자 증가폭은 더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8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3000명(2.4%)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2



월 56만5000명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9월 이후부터는 30만명대로 축소됐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증가세를 떠받치고 있지만 고용의 절반 이상 차지해왔던 고령층 직접 일자리 등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감소폭이 커지며 전체 고용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분야의 감소폭이 -1만1000명으로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

10월 5만5000명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22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4만5000명 증가했다.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도 대면활동이 정상화되며 4만명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가입자는 37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24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생산,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도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올해부터는 경기 둔화와

맞물려 이 같은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가입자가 전년보다 3만명 줄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더구나, 청년층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등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다만, 60세 이상(20만2000명), 50대(11만1000명), 40대(4만명), 30대(2000명) 등 대부분 연령층에서 가입자 수가 늘었다.

천 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 자체가 적어진 데다 20대 취업자가 선호하는 도소매, 보건복지, 공공행정 일자리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실업급여지급액은 74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6억원 감소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비용 2.6조 감축

농식품부,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농축산물 유통비용 비중 매년 늘어
5년내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

입고부터 출고까지 자동·정보화
상반기 10대품목 표준모델 마련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연내 개소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연간 2조6000억원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42.3%에서 2020년 47.5%로 증가했다. 유통비용 중 출하비용 비중은 11.7%에서 8.5%로 감소한 반면, 도매(9.4% → 10.8%), 소매(22.6% → 28.2%) 단계 비용은 상승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구조 변화에 맞춰 가정용·외식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산지 유통·물류체계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

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과, 배, 감귤,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참외, 양파, 마늘, 감자 등 10대 품목 별 표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저장·선별 등 기능별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함께 육성한다.

산지 대규모 통합물류를 위한 냉장유통(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수 산지로부터 농산물 수집 후 소비자 유통기업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에 대량 공급하는 권역별 거점 구축도 검토한다.

농산물 물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먼저,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2023년 출범한다.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2025년엔 축산, 2027년엔 식품·양곡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수거 거래체계를 사전예약 기반의 전자거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운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을 유도한다.

민간 유통혁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농산물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 명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유통·물류 새싹기업에 대한 창업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도 올해 마련한다.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지역에 기반한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새로운 유통시스템 추진을 위해 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 등 유통경로별로 구분하는 등 유통법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국 동부 쑤저우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민족 대이동 기간인 ‘춘원’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다음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신화·뉴시스

中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났다… 경제 ‘반등’

● 차이나 뉴스&리포트

‘춘원’ 시작에 각종 지표 회복세
도로·철도·항공 등 39% 급증

중국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살아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시작됐고, 유명한 관광지에는 인파가 몰렸다. 특히 대이동 기간인 ‘춘원’이 시작되면서 이동 등 각종 지표가 눈에 띄게 회복됐다.

10일 차이신에 따르면 춘원 첫 날인 지난 7일 도로, 철도, 항공 등 전국의 승객 수송규모는 약 3470만명으로 전년 대비 39%나 급증했다. 다음날에도 수송객은 3540만명으로 집계됐다.

춘원은 춘절 연휴 전후로 40일간의 민족 대이동 기간을 말하며, 올해는 이달 7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이다. 중국 교통부는 이번 춘원 동안 이동규모가 총 21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주요 도시의 교통량도 일제히 반등했다.

리서치 기관인 블룸버그NEF가 바이트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15개 주요 도시의 교통 혼잡은 2021년 1월 수준의 116%까지 급증했다. 주요 도시의 지하

철 이용량도 작년 12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계속 늘었다. 11개 주요 도시의 일일 지하철 승객 수는 지난 한 주간 전주 대비 20% 증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하철 사용 및 교통 혼잡의 급증을 보여주는 이동성 지표와 함께 여행의 증가는 중국 경제 전망에 좋은 징조”라며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최악의 상황을 지났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 중이다.

바클레이즈는 예상보다 빠른 위드코로나를 이유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8%로 1%포인트나 높였다.

OCBC 토미웨는 “중국의 활동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며 “남부 관광지인 하이난의 해변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위드 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베이징과 청두같은 도시들은 교통 이동 수준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춘원 기간의 첫째날과 둘째날의 승객 수는 2019년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40일간 전체로 보면 이동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70%까지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W

삼성전자, TSMC에 파운드리 역전 기대감

>> 1면 ‘흑한기 반도체 바닥 압박’서 계속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웨이퍼 엿지 활용은 물론 EUV 공정에서 높은 숙련도와 함께 멀티레이어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덕분이다. 4분기 경쟁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에도 D램에서는 여전히 흑자를 이어간 비결이다.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만큼 감산을 통해 공급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앞으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종희 부회장이 최근 CES2023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투자를 축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당초 계획대로 12나노급 D램 양산과 합

계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확대 등을 지속하면서 생산을 늘리려는 분위기다.

시선은 파운드리 경쟁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 최근 TSMC도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면서 초미세 경쟁이 본격화한 것.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게이트올라온드(GAA)까지 적용한 3나노 공정을 가동하며 수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수주전’에 돌입한 상태다. TSMC가 대형 고객사인 애플을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모습이지만, 수율을 과장한다는 의혹 등 실제 기술력에 의문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전’ 기대감도 적지 않다. /김재용 기자 juk@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 도입… 내년 총선 적용 ‘촉각’

여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공감
국회 정개특위, 관련 법률안 심사
세부사항 두고 여야·의원간 이견
국회의장 “3월 중순까지 정할 것”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화답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내년 총선부터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회부해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할 것이라는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 대구·경북에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정당·후보 모두 선택, 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4~9인 대선거구제(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20석 축소, 6개 권역 비례대표 110석) ▲4~5인 지역구 대선거구제(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병립형 전국 비례대표 46석 혼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에서 2~4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정당 내 다양성 보장 등이라는 장점을 고

려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표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도에 따라 당선 순위가 결정돼 정치 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커지면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달라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또한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지만,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정개특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

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다당(多黨),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한 적 있는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당 정치혁신 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원외 정당인 진보당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치 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규정한 뒤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없는 죄 조작, 사법 쿠데타… 정권의 역주행” 심상정 “시중銀 대출 2%, 서민 대출 할당”

‘성남FC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李 제거에만 혈안, 유례없는 탄압”
“檢 왜곡·조작 상소 초월” 결백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통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당 지도부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찾아 정견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서 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할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과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꿨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다”며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



이재명 대표 ‘입장 밝힐게요… 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비속어를 쓴 시민을 향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들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에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 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를 해서 받은 광고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면서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 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너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과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법정 최고금리 27.9%인상 비판
고금리 시대 특단 대책 마련 주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를 거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대출의 2%를 서민 대출에 할당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상 재고 등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뜰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민 사채알선에 나서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약탈복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분들”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고소득층이 금융부채를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인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비 때문에 돈을 빌린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시기 국내 은행이 사상 최대규모의 이윤을 얻었음에도,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서민 등, 한쪽의 고통이 한쪽의 폭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

의 공공성을 관리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무기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 규모 중 1~2% 정도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할당 ▲시중금리 이하 대출을 제공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확대에 서민 생계 지원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확대 실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작년 6월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평균금리 14% 기준으로 약 15조8746억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1396조원 중 1~2%만 저신용자에게 대출하면 약 14조에서 27조 정도 사이로 충분히 서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은행들의 자금 운용은 사회적 성격을 갖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고객의 돈”이라며 “그래서 금융기관은 상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것이다. 공공성을 근거로 규제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준비금 제공, 공적자금 투입 등의 정책도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신용 서민대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혹여나 정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지는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

업계 첫 오픈뱅킹 도입 등 ‘디지털 전환’ 통해 편의성 강화

2023 보험사 경영전략

① 교보생명

경영환경 ‘영구적 위기’ 맞아 다양한 시나리오로 적시 대응

아마존웹서비스와 협업 통해 클라우드 확대 등 디지털 혁신 가입·보험금 수령 전과정 단축

교보생명은 올해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경영 전략은 ‘뷰카 리더십’이다. 뷰카(VUCA)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앞 글자를 가져온 단어다. 변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사내벤처 ▲외부 디지털 인재 활용 ▲벤처캐피탈(CVC) 전략적 투자 ▲엑셀러레이션 ▲외부 업체와의 합작법인(JV) 등을 중점 과제로 잡았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최근 경영전략회의에서 “우리를 둘러싼 지금의 경영환경은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는 것 같다”며 “경제적 불안정과 위기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는 ‘영구적 위기’란 뜻으로 국내외 상황까지 가정해 다양한 시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위한 플랫폼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은행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지원	예금·보험 샌드박스(시범운영) 후 제도와 검토
보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지원	펀드 투자중개업 인가 검토
카드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지원	

소비자보호 등 관련 리스크 보완

통합업 관련 소비자 보호 내실화	플랫폼 비교·추천 관련 리스크 관리
판매주체 명확히 고지·안내	위탁금융회사를 통한 관리 강화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구축	금소법 등 기존 규제 적용
피해발생시 운영사와 판매사 공동배상	플랫폼 특성 고려한 새로운 규제 도입

자료/금융위원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경영전략회의에서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보생명

나리오를 준비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오픈뱅킹’ 선제적 운영

교보생명은 지난달 말 보험업계 최초로 오픈뱅킹을 도입했다. 교보생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 잔고와 증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교보생명 앱을 이용해 선불충전과 카드 정보 조회 등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사용자 간 간편 송금 등 계좌이체 서비스도 가능하다. 지난해 2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의 속도를 내려는 전략이다.

교보생명에 이어 타 보험사들이 오픈뱅킹에 참여하면 소비자들의 편의성 또한 높아질 예정이다. 오픈뱅킹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곳의 플랫폼에서 금융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결제원의 디지털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서비스도 적용했다. 디지털 OTP의 사용처가 은행, 증권을 비롯해 보험까지 전 금융권에서 확산하는 추세다.

교보생명은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준비했다. 지난해 5월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아마존웹서비스와 클라우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웹서

비스의 기계학습을 활용해 임직원 대상 빅데이터시스템 오션과 인공지능 기반의 보험 가입심사 서비스 ‘바로’를 아마존웹서비스로 이전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부터 신사업 확대로 확장 등을 노리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이 전 금융업권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경쟁력 제고에 있어 필수다”라고 해석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보험 강점 살린다

교보생명은 ‘데이터 시각화 포털’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그래프를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한다. 의사 결정부터 업무 효율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수령 등의 전 과정을 단축했다. 지표표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있다.

보험 가입 부문에서는 ‘모바일 보험증권 즉시 전달’, ‘스마트폰을 활용한 심사 보완 및 청약 확대’ 등을 도입했다. 그간 가입자에게 보험 증권을 전달하기까지 평균 35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11시간까지 단축했다.

보험금 지급 또한 빨라졌다. ‘인공지능 자동심사 모델 구축’, ‘디지털 기반 자동 지급 심사율 확대’, ‘지급심사 완료 후 즉시 송금’ 등을 신설해 사고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4.8시간에서 2.7시간으로 줄었다.

신 회장은 “빅테크 등 디지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외부 파트너와 협업해 보험 비즈니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신규 사업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험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이노스테이지 운영과 사내벤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보생명만의 견고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인상 제동

금리산정·운영실태 모니터링 강화 단축됐던 영업시간 정상화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코로나19로 단축했던 은행들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고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하강 우려도 커지면서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그는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산정·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감독원

아울러 이 원장은 은행권에 성과보수체계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 보수 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 보수 체계의 개선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지

속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중은행 대부분은 2020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하면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단축 운영에 돌입한 뒤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이에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마이데이터 사업자, 내년부터 이용료 낸다

올부터 과금… 내년 월별정산에 포함 정보제공사 구축비 年 1293억 달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수료를 받는다. 올해 사용한 데이터 수수료는 내년 월별 과금액 정산시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인 데이터 전송 원가분석을 위해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된 전송시스템 개발·구축비용과 지난해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 발생한 운영비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회계법인에 제출한 지난해 1~9월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데이터 전송원가를 추가 분석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기상청 항공기상정보 수수료는 3년간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거쳐 사용료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과금산정체계를 마련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앱 출석하고 순금 10돈 받아주세요”

케이뱅크

출석체크·세뱃돈 보내기 등 설 맞아 다양한 이벤트 준비

케이뱅크가 새해와 설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출석체크하고 행운권을 받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순금 10돈 토끼 골드바(1명), 애플워치 8세대(3명), 에어팟프로 2세대(5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쇼(1000명)를 제공한다.

세뱃돈 보내기 이벤트도 있다. 케이뱅크 고객은 세뱃돈을 보내고 싶은 지인에게 이벤트 페이지 추천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 이후 링크를 타고 들어온

지인이 케이뱅크 신규 계좌를 만들면 1만원을, 기존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최대 3000원까지 랜덤으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새해 다짐 적기 이벤트’도 있다. 기본통장의 이모지 중에서 새해 이모지를 선택하고 메시지란에 새해 다짐 또는 소원을 적어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23명을 추첨해 현금 5만원을 지급한다.

매일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없고 여러 번 입금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나유리 기자

기업銀, 中企 비대면 해외진출 지원 나서

‘해외진출 BOX’ 통해 다양한 서비스

IBK기업은행은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비대면 ‘해외진출 BOX’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진출 BOX’는 글로벌 진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로 IBK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돕고자 새롭게 출시됐다.

기업은행은 ‘해외진출 BOX’를 통해 ▲IBK 글로벌 네트워크 및 국가별 진출정보(법인설립절차 등) ▲코트라 등 국내 기관별 해외진출 지원제도 ▲외국환 신고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현지금융 온라인 상담 접수 및 국외점포 담당자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사람입니다

첨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도 공장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인,
39,000명의 SK하이닉스 사람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첨단 기술의 미래를 향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시장서 글로벌 세일즈... 경영진 지원사격

SK㈜, 美 ‘SK 바이오 나이트’ 개최

바이오팜·팜테코 등 관계사들과
파트너십 확장 네트워킹 행사
장동현 부회장 등 경영진 참석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등
글로벌 확대현황·신약전략 발표

투자전문회사 SK㈜가 SK바이오팜, SK팜테코 등 바이오 관계사들과 공동으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

SK㈜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포시즌스 호텔에서 SK㈜ 제약·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사, 투자회사 등 50여개사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하는 ‘SK 바이오 나이트(SK Bio Night)’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장동현 SK㈜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 요그 알그림(Joerg Ahlgrimm) SK팜테코 사장, 김연태 SK㈜ 바이오투자센터



터장 등 SK㈜의 제약·바이오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경영진이 모두 참석한다. 이 행사에서는 관계사들과 미래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투자자와 파트너사와의 협력관계를 다지고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세일즈에 대해 논의한다.

SK바이오팜, SK팜테코, SK㈜ 바이오투자센터는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CEO

및 투자센터장을 신규 선임한 바 있다.

SK㈜는 김연태 바이오투자센터장이 나서 합성약품 중심 포트폴리오를 넘어 바이오의약품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다.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XCOPRI, 엑스코프리)를 성공적으로 미국에 출시한 SK바이오팜은 이동훈 사장이 직접 나서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김연태 SK(주) 바이오 투자센터장

시장 확대 현황과 SK바이오팜의 차세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SK 팜테코는 의약품 위탁생산 사업(CDMO) 분야의 신성장 영역인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 Cell & Gene Therapy)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입 후 글로벌 CDMO 기업으로 진화 중으로, 요그 알그림 사장이 사업 비전 및 경쟁력, 글로벌 CDMO로서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SK㈜는 제약·바이오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합성 신약과 CGT CDMO 사업 등에 선택·집중해 경쟁력을 높여왔다.

SK㈜는 국내 SK바이오텍을 필두로 2017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MS·Bristol Myers Squibb)이 보유한 아일랜드 공장(현 SK바이오텍 아일랜드), 이듬해 미국 앰팩(Ampac) 등을 인수했고, 2019년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에 걸친 CDMO 사업 통합 운영을 위해 SK팜테코를 설립했다.

2021년 SK㈜는 SK팜테코를 통해 프랑스의 이포스케시(Yposkesi)를 인수하며 CGT CDMO 사업에 진입한 후 2022년 미국 CGT CDMO CBM(Center for Breakthrough Medicine)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김연태 SK㈜ 바이오투자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거점을 중심으로 바이오 사업 현지화를 통해 성장 기회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 E&S, CES서 美 플러그파워와 ‘수소 파트너십’ 강화

추형욱 사장, 앤디 마시 CEO 만나 주요사업 점검·협력 방안 등 논의

SK E&S가 글로벌 수소에너지 선도 기업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수소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 강화에 나섰다. SK E&S의 추형욱 대표이사 사장도 ‘CES 2023’ 현장을 찾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글로벌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현장에서 SK E&S는 추 사장은 앤디 마시(Andy Marsh) 플러그파워 최고경영(CEO)를 만나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의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수소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1월 합작회사(JV) 하이버스를 설립하고 아시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앤디 마시 플러그파워 CEO와 만나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 E&S

아 시장 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양사는 우선 액화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수소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올해 SK E&S는 연산 최대 3만톤 규모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상업가동을 시작한다. 하이버스는 전국 주요 수요처 인근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SK E&S가 생산한 액화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인 인천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하이버스는 내년부터 수소 연료전지와 전해조 설비의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고,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제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 사장은 앤디 CEO와 만난 자리에서 “수소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플러그파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앤디 CEO는 “SK그룹의 에너지 분야 사업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사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ES 기간 동안 SK 전시관에서는 플러그파워의 수소 연료전지 ‘젠드라이브(GenDrive)’와 수소 충전기 ‘젠퓨얼(GenFuel) 디스펜서’ 등을 선보였다.

미국의 수소 기업인 플러그파워는 그린수소의 생산, 저장, 활용을 포괄하는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게차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미국 내 시장점유율 95%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물을 전기분해해(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전해조 설비 제조 기술력 분야에서도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는 등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앞서 SK E&S는 2021년 초 SK㈜와 함께 플러그파워에 약 1조 800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추 사장은 에버차지(EverCharge) 제이슨 아펠바움(Jason Appelbaum) CEO와도 만나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시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전자

‘프라엘 더마세라’ 탄력 관리기 출시

볼·이마 등 처진 얼굴라인 케어
턱밑 35% 이마 30% 탄력 개선

LG전자 프라엘이 불편함 없이 얼굴 라인을 케어해준다.

LG전자는 10일 LG 프라엘 더마세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턱밑과 이마, 눈 주변과 볼 주변 등 처지기 쉬운 얼굴 부위 탄력을 관리해준다. 헤드 부위를 피부에 밀착해 버튼을 터치하면 초음파가 피부 3mm 아래 부위에 정확하고 균일하게 조사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원리다.

LG전자는 초음파로 자칫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페인 포인트’에 주목했다. 초음파를 정밀하고 균일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불편함 없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

피부탄력 관리 효과도 증명했다. P&K 피부임상연구센터가 성인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피부 개선 실험 결과에 따르면 주 1회씩 4주 동안 더마세라를 사용하여 턱밑과 이마 피부 탄력을 각각 34.8%와 29.8%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공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인체공학적인 디자인도 적용했다. 피부에 닿는 헤드 크기와 손잡이 두께는 물론 제품 무게(280g)와 길이(20cm) 등은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LG전자 휴먼티사업담당 남혜성 상무는 “초음파 제어 기술과 앱 연동성을 강화한 LG 프라엘 더마세라를 앞세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피부 탄력을 관리하는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화학, 금속 대체 ‘플라스틱 펜더’ 미쓰비시車에 적용

차량 무게 줄여 연비 향상 기여 배출가스도 줄여 탄소발자국 감소

LG화학이 차량을 가볍게 하는 정전도장 플라스틱 소재를 미쓰비시 자동차 외장에 적용했다.

LG화학은 미쓰비시 자동차의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인 아웃랜더(Outlander), 델리카(Delica) D:5, RVR 3종의 프론트 펜더에 LG화학의 정전도장 플라스틱 소재(제품명 LUCON TX 5007)가 적용됐다고 10일 밝혔다.



프론트 펜더에 LG화학의 정전도장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된 미쓰비시 자동차의 Outlander /LG화학

프론트 펜더(헨다)란 앞쪽 타이어를 덮고 있는 자동차 옆면의 외장 부품이

다. 운전 중에 지면으로부터 튕 가능성 많은 진흙이나 물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프론트 펜더를 LG화학은 정전도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볍게 했다. LG화학은 200℃가 넘는 페인트 건조 과정을 견딜 수 있고 뒤틀림이 적은 폴리페닐렌 에테르(PPE) 소재와 충격에 강한 폴리 아마이드(PA) 소재를 섞었다. 여기에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탄소나노튜브(CNT)를 첨가해 정전도장 플라스틱을 만

들었다.

정전도장 플라스틱으로 만든 프론트 펜더는 자동차를 도색할 때 금속 차체와 함께 한 번에 칠할 수 있어(Online Painting) 효율적이다.

또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금속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차량의 무게가 줄어 연비가 향상된다. 차량의 배출가스도 줄어들면서 탄소 발자국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LG화학의 정전도장 플라스틱은 프론트 펜더 외에도 범퍼, 사이드미러, 트렁크, 연료 주입구 등 자동차 부품사고객들이 원하는 외장 부품에 적용 가능하다. /허정윤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발돋움

인니 섬에 팜유 정제공장 짓는다

팜사업 확장위해 2481억 투자
건립 부지로 ‘칼리만탄섬’ 검토
원료조달·수출 등 지리적 유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에너지, 식량, 친환경 부품 등 핵심사업에 과감한 투자로 ‘종합상사’에서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팜유 정제사업 진출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억달러(약 2481억원)를 팜사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아그파(AGPA)를 통해 투자한다. 정제공장은 올해 4분기 착공 후 2025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며 생산능력은 연간 50만톤 규모다. 생산된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뿐 아니라 한국,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정제공장 부지로는 칼리만탄섬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 팜 생산국으로, 칼리만탄 섬은 지리적으로 팜 원료 조달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팜유 정제사업은 팜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정제공장을 통해 한 단계 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제된 팜유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등에 사용된다. 팜오일은 대두유보다 10배, 해바라기유 대비 7배 등 식물성 기름 중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다.

팜유의 생산성과 경제성 덕분에 정제사업 진출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 농장을 개발해 2017년부터 팜 원유를 생산해 왔다. 팜사업 영업이익 8000만달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 합병 전에 거둔 2022년 전체 영업이익 약 9000억원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팜 농장법인인 PT. BIA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를 상회하는 환경정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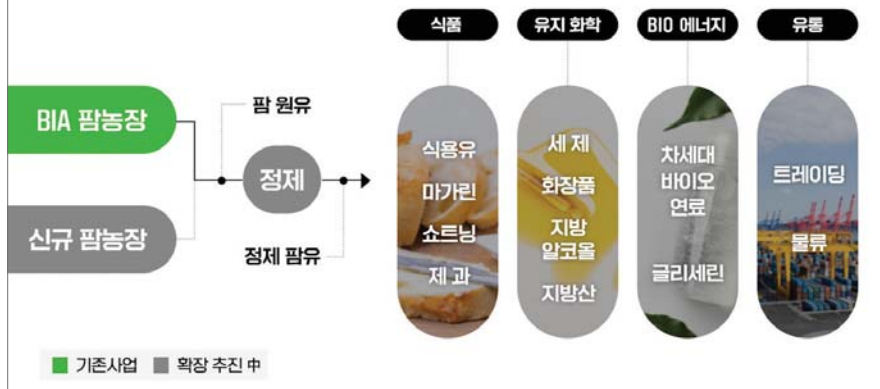
2020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환경과 현지 주민의 권리·인권을 보호하며 팜유를 생산하겠다는 팜사업 환경사회정책인 NDPE를 선언했고, 2021년에는 국제 지속가능 팜오일 인증인 RSPO 인증을 획득했다.

또 2017년부터 한국 의료진의 의료봉사활동을 조직, 총 7000여명의 현지 주민에게 의료혜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 내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설립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 1000여명에게 무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맹그로브 나무를 식재하고, 인도네시아 긴팔원숭이 연구 프로젝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사업 밸류체인 및 정제팜유의 일반적 용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사업 밸류체인 및 정제팜유 일반적 용도

/포스코인터내셔널

를 후원하는 등 환경과 생명다양성 보존에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탁 부회장은 “기존 상사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종합사업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수익성 높은 사업을 발굴,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올해를 식량 사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해외 조달

및 수요자산 투자를 통해 사업기반을 강건화 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늦어도 설 전 인사·조직 개편 마무리

구현모 대표 ‘연임’ 강한 의지 반영
윤경림·박종욱 사장 등 이동 주목

KT 구현모 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에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늦어도 설 전까지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KT의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은 구 대표의 연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10일 “올해 임원 인사는 대표이사 선임 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 미뤄졌다”며 “지주형 전환, 계열사 투자 유치 등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경쟁사에 비해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이 늦어짐으로써 KT가 사업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업계는 이번 인사에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구 대표 최측근인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사장,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사장,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경영기획부문장 사장, 신현욱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이동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에게 표적이 됐던 박종욱 사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 기소된 후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T 지주형 전환의 총책을 맡고 있는 윤경림 사장은 KT의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과 우호 관계 유지에 핵심적인 인물로 꼽힌다.

현재 조직개편 지연으로 지주형 전환에 대한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다. 800억원을 투자하는 KT클라우드도 일정도 연기된 상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도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주형 전환 및 계열사 투자 유치 작업이 다시 가속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 상용화 실증 성공

SKT-노키아, 설치·필드시험 검증
안정적 5G 서비스 속도·성능 확인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 상용화 실증에 성공했다. 클라우드 기반 오픈랜 가상화 지기국 상용망 설치 및 필드 검증을 완료한 것이다.

SK텔레콤은 노키아와 함께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을 상용망에 설치, 필드 시험을 통해 안정적인 5G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성능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은 기지국 등 이동통신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한 것을 말한다. 장비 간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가 연동할 수 있다.

SKT와 노키아는 지난해 초 5G 64T Rx 장비와 연동된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기지국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픈랜 기지국 연구를 함께 진행해왔다. 이번에 국내 처음으로 상용망에 설



SKT 연구원들이 트래픽 혼잡 상황에 활용하는 솔루션을 테스트 하는 모습. /SKT

치하여 5G 성능을 실증했다. 양사는 향후 오픈랜 기지국으로 5G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SKT와 노키아는 트래픽 자동 최적화가 가능한 지능형 기지국 제어장치(RIC) 개발·검증에도 성공했다. 양사는 기지국간에 트래픽을 분산하는 기술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패킷 지연시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지능형 기지국 제어장치에 적용함으로써 5G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美 포시마크 찾은 최수연 “기술·사업 시너지로 ‘원팀’ 기대”

네이버, 북미 중고거래 플랫폼 인수
상견례 갖고 비전·통합 방향성 공유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9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 레드우드시티에 위치한 포시마크 오피스에서 상견례 및 사내 설명회를 진행했다. 네이버가 인수한 포시마크는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지난 6일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포시마크 임직원 800여명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미국 각 도시와 호주, 인도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대표들은 네이버의 철학과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인수 이후 비전 및 통합 방향성에 대해 공유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해 웹툰부터 블로그까지 수많은 창업자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포시마크는 다양한 셀러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인 만큼



10일(미국 현지시간 9일) 진행된 포시마크 타운홀에서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 중인 네이버 최수연 대표. /네이버

다양성이라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포시마크가 그동안 쌓아온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네이버와 협업해 나간다면 네이버의 기술·사업 시너지가 더해져 ‘원 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시마크 임직원과

통합 이후 계획과 사업 전략, 기업 문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네이버 스마트렌즈 기술이 적용된 포시 렌즈를 시연하기도 했다.

이날 포시마크 임직원 800여 명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미국 각 도시와 호주, 인도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채윤정 기자

기아, 기준금리 적용 모닝 할부 프로모션

기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모닝 전용 ‘굿모닝’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일 기아에 따르면 ‘굿모닝’ 할부 프로모션은 업계 최초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차량 할부 금리로 적용되는 모닝 전용 구매 프로그램이다.

프로모션을 통해 모닝을 계약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할부 기간 동안(12·24·36개월 중 선택) 차량 출고월 1일 기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단 현대 M계열 카드로 선수율 10% 이상 결제해야 한다. 월중 한국은행 기

준금리 변동시 다음달 금리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1월에 모닝을 출고하면 1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25%의 할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아는 ‘굿모닝’ 할부 출시로 최근 7%를 넘어서는 신차 할부 금리 때문에 차량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1월 중 ‘굿모닝’ 프로모션을 통해 모닝을 계약한 고객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얼라인 “은행들 주주환원율 50% 수준까지 올려야” 압박

7개 은행지주 이사회에 주주서한
국내 은행주, 평균 PBR 0.3배 거래
“과도한 대출 경쟁 탓 자금 유보”

국내 은행지주들의 심각한 저평가이
유가 낮은 주주환원율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
스자산운용은 국내 7개 은행지주 이사
회에 주주서한을 보내며 주주환원율을
50% 수준까지 올리라고 강하게 요구하
고 있다.

◆국내 은행지주 밸류에이션, 23개국
중 22위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얼라인
은 지난 2일 국내 증시상장 은행지주사
전체를 대상으로 자본배치 정책 및 중
기 주주환원정책을 도입을 요구하는 내
용의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대상은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
용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국내 은행주 캠페인 공개 간담회에서
“전 세계 23개국의 은행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2위, 중국이



지난 9일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
표가 여의도 IFC에서 ‘은행주 캠페인’ 공개 간
담회에 참석했다. /박미경 기자

꽤 짜”라며 “수익성,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없어 펀더
멘털 때문에 저평가되는 건 아니다. 바
로 주주환원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실제로 국내 은행주들은 현재 평균 주
가순자산비율(PBR) 0.3배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해외 은행들 평균 PBR 1.3배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주가수익비
율(PER)도 해외 은행들의 평균이 9.5
배인데 반해, 한국은 3.1배 수준이다.

얼라인은 주주서한을 통해 ▲자본적
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기반한 자본배치정책 ▲목표 주주환원
율 및 대출자산(RWA) 관리에 기반한
주주환원정책을 오는 2월 9일까지 이사
회 결의 및 공정공시로 공식 도입할 것
을 요구했다.

우선 CET1 비율을 감독당국 가이드
라인인 10.5%에 맞추고, RWA 성장을
줄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대출 경쟁
탓에 자금이 유보되면서 주주환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환 대표는 “본업 재투자인 대출
자산 성장은 주주 환원에 비해 비효율
적”이라며 “아무리 열심히 해서 대출자
산 성장에 1조원을 투입해도 주주가치
는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배당
에 1조원을 투입하면 그대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과도하게 성장하고 있으니 자기자본비
율은 규제 비율보다 보수적으로 총당하
되 목표주주환원율을 설정하고 대출 성
장률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맞
춰 적절히 조절하지는 게 골자”라고 덧
붙였다.

최소 목표주주환원율은 50%로 제시
했다. 그는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의
미있는 수준은 50%라고 생각한다”며

“예측 가능하게 30%를 환원하겠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안건을 이사회 결의나 공
정공시를 통해 2월 9일까지 공표해 달
라고 제언했다. 이사회의 회신이 없거
나 불충분할 경우 얼라인이 직접 주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
이라고 밝혔다.

◆주중 표대결 자신…우리금융 M&A
비판

얼라인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를 상대로 1.1%에 불과한 지분으로 주
주제안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이
번 은행주 캠페인 역시 주주총회 안결
로 올라 표대결이 이뤄져도 승산이 있
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중 표대결까지 가도 이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폭탄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금 높은 수치의 배당안을 제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매니저나 기
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 쪽으
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금융지주를 겨냥해 신규 인수합
병(M&A)을 반대하는 작심발언도 이
어갔다. 현재 우리금융의 기업가치 수

준에선 신규 M&A보다는 자사주 매입
과 소각이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은 벤처캐피탈(VC)인 다올인
베스트먼트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우리금융이 다올인베를
2000억~3000억원에 인수하면 다올인베
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 PER
85~128배에 거래하는 것”이라며 “다올
인베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2021년 순
이익(648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PER
은 5.9~8.9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들에게 M&A가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
좋다고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M&A의
M자도 꺼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메리츠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
주의 중기 주주환원정책 발표에 대해서
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리츠금융지
주는 앞으로 3년 이상 최소 50%의 주주
환원율을, 신한금융지주는 자본비율을
12%대로 유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메리츠가 모범 사례
인 이유는 이사회 결의 및 공정공시로
강한 수준의 약속을 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서학개미, 테슬라 주가 추락에도 “일단 담자”

해외주식 Click

지난주에만 1억4981만달러 매수
테슬라 주가, 지난달부터 ‘부진’

새해에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사
랑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때도
세로 잠시 돌아서는 듯 했지만 곧바로
지난주에만 1억5000만달러 어치를 사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월2~8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중

목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인 것으
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동안 국내 투자
자들은 순매수액은 총 1억4981만달러
였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부터 부진한 흐
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 194.7달러였지만 이후
한 달간 36% 이상 하락하면서 123.18달
러로 장을 마쳤다. 이어 올해 첫 거래일
인 3일에는 108.1달러까지 하락했으
며,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9일 119.77달
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테슬라 주가 긍정론자로 알려진

캐시우드 아르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
자(CEO)도 연초부터 테슬라 매수에 열
을 올리며 ‘저점매수’에 나서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디스트리트 등 외신에 파
르면 엔비디아 매각 자금으로 테슬라
주가 매수에 나서 약 5만8000주를 AR
K 펀드에 담았다고 전했다. 캐시 우드
CEO는 지난 6일 엔비디아 보유지분 가
운데 3만1700주를 매각한 반면 테슬라
주식은 5만8000주 가량을 추가로 매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는 테슬라 개별 종목뿐 아니
라 테슬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

F)를 사모으면서 테슬라 상승에 베팅하
고 있다. 테슬라 종목의 일주익률 1.5배
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X 샐어즈(TSL·DIREXION D
AILY TSLA BULL 1.5X SHARES)
가 순매수 5위에 올랐다.

여기에 뉴욕 증시 대표 기술주인 애플
도 순매수 상위 3위(2103만달러)에
오르는 등 하락세가 나타난 종목을 중
심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테슬라와 애플 등 개별 종목을
사모르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 대표 지
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을 얻는 레버리
지 ETF를 사모르는 투자자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2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

컨덕터 베어 3X ETF(SOXS·DIREXI
ON DAILY SEMICONDUCTORS
BEAR 3X SHS ETF)로 ICE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역으로 3배를 추종하
는 종목에 2681만달러가 유입됐다. 더
불어 나스닥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역으로 3배 추종하는 프로샐어즈 울트
라프로 숏 QQQ ETF(SQQQ·PROSH
ARES ULTRAPRO SHORT QQQ E
TF)가 4위로 1916만달러 순매수했다.

이 외에도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간
수익률 3배 추종 ETF인 TQQQ 6위
(1452만달러),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 ‘JPST’ 7위(1005만달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금리 3배를 추종하
는 TMF 8위(886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이영석 기자 ysl@

증권업계, 올해도 ESG 경영 실천 ‘활발’

미래에셋증권, 사회적기업 지원
KB증권, 태양광발전 시설 구축

증권사들이 연초부터 사회공헌활
동, 친환경 전환 등 환경·사회·지배구
조(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ESG 경영이 점점 더 중요
해지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이러한 추
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ESG 평가에서 모두 A 등급을 획
득한 미래에셋증권은 올해도 ESG경
영차원에서 국내 농가를 지원하고 취
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부터 8톤의 우리 쌀을 구매해 퇴직연
금 가입 고객사에 제공한다.

이날금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 대

표는 “과학기술인연금,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의 위탁운용 사업자로 연
금의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기업
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기
업과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할
인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까지 총 전력 사용량의 100%를 신재
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친환경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KB증권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비
용 절감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 친환경 경영 이행을 위해 보유 중
인 사육 두 곳에 연간 16만 킬로와트
시(KWh)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 28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
는데, 이는 매년 나무 5000그루를 심
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KB증권은 내연기관 업무용 차
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있으
며, 본사 건물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도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했다.

이밖에 KB증권은 종이사용을 획
기적으로 줄이고자 고객 금융거래 업
무 프로세스와 거래내역 통지를 디지
털화하고 전사 복합기에 ‘Less Pape
r 솔루션’을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종이사용량 절감을 실천할 계획
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ESG 이니셔티브
가입이나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도
입하는 등 ESG 경영을 고도화해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키움증권은 계
속해서 ESG 활동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엔지니어링, 원전 EPC 사업 본격화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전 EPC(설계·
조달·시공) 사업에 나서기 위한 국내(K
EPIC)와 해외(ASME)에서 관련 품질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KE
PIC(전력산업기술기준·Korea Electr
ic Power Industry Code) 인증 심사를
거쳐 ‘KEPIC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KEPIC 인증’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전력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다. 대한전기협
회가 조건을 갖춘 조직과 인원이 KEPI
C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격
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원전 사업부문에
서 ▲원자력 기계에 대한 설치·보조품
목 제작·재료업체로서 급속 및 비급속

재료의 공급 ▲원자력 구조(SN)에 대
한 시공·구성품의 제작·재료업체로서
급속 및 비급속재료의 공급 ▲원자력
전기(EN) 1급 전 품목의 설치 ▲공조기
기(MH) 및 관련 품목의 설치에 관한 역
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월 미국 ASME(American Society o
f Mechanical Engineers·미국기계학
회)로부터 ‘원자력 부문 설치 및 공장
조립(NA)’, ‘부품 및 배관 하위 조립품
등 제작(NPT)’, ‘지지물 제작(NS)’에
대한 인증도 획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해 A
SME부터 KEPIC까지 국내외에서 원
자력 품질보증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면
서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소형모듈원
자로(MMR) 사업과 소형모듈원자로(S
MR)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WATSON

THE MAESTRO

알버트 왓슨 사진전
2022.12.8-2023.3.3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주최 한겨레

예술의전당



주관 한겨레

후원



협력



Munch

몽크소통타운

출입증·네임택 없어도 OK… ‘네이버 출입증’ 회사까지 확대

무인 편의점 등 넘어 활용처 확대
제2사옥 적용… 베타테스트 진행
외부인 출입시 QR로 간단 통과
분실 위험없고 폐기물 감축 효과

지금까지 무인 편의점, 무인 꽃집 등에서 사용돼 오던 ‘네이버 출입증’ 서비스가 네이버 제2사옥인 ‘1784’ 건물에 처음 적용된다.

네이버는 9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784 건물에 베타 서비스 형태로 네이버 출입증을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 등 계열사들이 위치한 판교 테크윈 빌딩에도 16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금까지 네이버 출입증은 이마트24 등 무인편의점에 들어갈 때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도록, 무인 꽃집 등 무인 시스템이 적용된 곳에 주로 적용해왔다. 또 무인 횡집, 무인 고깃집, 무인 강의실에서도 이용돼 왔다”며 “네이버 출입증을 무인시스템에 적용할 뿐 아니라 ‘사옥을 출입할 때 적



네이버 사옥에서 네이버 출입증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

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1784 베타 서비스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 출입증 서비스는 아직 전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베타 테스트 기간 중 파트너와 교류가 많은 몇몇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달 간 출입증 서비스 사용성을 점검한 후 2월부터 전체 임직원들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전

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1784에 스타트업들이 입주돼 있는데, 파트너들이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파트너스룸’을 이용하기 위해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다”며 “네이버 출입증으로 QR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네이버 앱만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직원은 자신의 방문자를 미리 등록하면 되는 데, A씨가 몇 월 몇 일에 방문한다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방문자는 네이버 앱을 설치 후 앱 상에서 ‘나’를 눌러보면 바로 출입증 서비스가 보이는데, 출입증을 누르면 바로 QR 코드가 나타난다. 이를 처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네이버 출입증은 현재 이마트24, CU, GS25 등 전국 무인 편의점, 무인 정육점, 무인 밀키트, 무인 반려동물용품점 등 2200여곳이 넘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보안이 중요한 사옥에서 사람과의 대면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테스트가 중요하다.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네이버 출입증 서비스는 실물 출입증 분실과 위변조에 대한 걱정 없이 네이버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안적인 면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이 특징”

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객들의 출입 내역도 관리할 수 있고 방문객 대상으로 일괄 안내메시지도 발송할 수 있는 등 관리적인 면에서도 편리하다.

네이버 출입증은 이번 베타테스트를 거치며 무인 매장 관리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용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네이버측은 “네이버 출입증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손목에 띠를 두른다거나 네임택을 하는 등 방법을 적용해왔다”며 “네이버 출입증은 출입증을 분실할 위험도 없어진다. 기업에서 사원증이나 출입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들은 행사에서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또 네이버 출입증 사용으로 종이나 플라스틱 소재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HJ중공업, 경비함 등 6500억대 ‘수주 대박’

작년 말부터 잇단 수주 쾌거
해군 사업 수행 경쟁력 입증

HJ중공업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독도함 개량사업 등 총 6500억원대 군함을 수주하면서 ‘수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HJ중공업 조선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처음 1600억원대 규모의 해군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 발주에 이어, 해경 3000톤급 경비함 1척(851억원)을 추가 수주했다.

이로써 HJ중공업은 고속정부터 전투함과 상륙함, 대형 수송함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다 함정을 건조하는 실적을 쌓아 군함의 설계와 건조부터 성능 개량과 각종 군수지원 시설까지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방산전문업체임을 입증했다.



미 해군 JLOTS 훈련 모습.

JLOTS 체계는 파괴된 항만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 항만시설을 구비해 선박의 장비와 물자를 육상의 전투부대로 공급하는 군수지원 과정을 뜻한다. 태풍이나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으로 고

립된 섬 주민들에게 구호물자와 장비,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구조 활동에도 투입할 수 있다.

특히 HJ중공업이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JLOTS는 미군 작전에

투입되는 ▲작·하역 계류주교 ▲부유식 부교 ▲부교에연정 ▲수송지원정 ▲해안유류지원정 ▲해안양륙지원장비 등의 전문장비를 모두 포함한다.

또 3000톤급 경비함은 길이 120m, 최고 24노트(45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첨단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이 탑재되며, 고정력강을 이용한 최신 선체설계가 적용된다. 40일간 물자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하며, 원양해역까지 수색·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경비함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과 방산 증가의 자부심을 토대로 전투부대의 동맥이자 생명선인 JLOTS와 해경 경비함 건조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군·경의 작전수행 능력과 해상방위력 증강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74년 국내 합정부문 방위산업체 1호 지정 기업인 HJ중공업은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수요기관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반도체 공정 AI 도입” SK하이닉스 수율 개선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으로 반도체 생산성을 높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부터 양산 팹에 가우스랩스가 개발한 가상 계측 AI 솔루션 ‘판옵테스 VM’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옵테스 VM은 제조 공정에서 센서 데이터를 취합해 결과를 예측한다. 제조 공정에서 모든 일을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판옵테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판옵테스 VM을 개발한 가우스랩스에 투자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박막 증착 공정에 먼저 이 솔루션을 도입했다. 종전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탓에 전수 조사가 어려웠지만, 가상 계측을 통해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박막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수율 향상까지 달성했다. 앞으로 가우스랩스와 다른 공정으로 확대 진행을 검토 중이다.

가우스랩스의 김영한 대표는 “가우스랩스는 최고의 AI 기술을 통해 제조 현장에 의미 있는 효과와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난제들을 공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제조/기술 김영식 부사장은 “반도체 개발 및 생산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술우위를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며, 이번 Panoptes VM 도입은 시작일 뿐”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롯데케미칼 국내 최초 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인체·환경 미치는 결과 측정
ABS 소재, 폴리머 제품 등 평가

롯데케미칼이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자사 생산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제품 위해성평가는 특정 화학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체계다. 제품에 함유된 물질 및 함량, 독성, 인체·대기·물·토양 등 노출량, 잔류성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화학 제품에 노출되는 작업자, 최종 고객의 위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의 외부 영향도를 확인해 기존 대비 안전한 대체 물질·소재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최근 ESG 경영 강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제품·소재 차원의 위해성 등 정보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따라 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제품에 포함된 개별 ‘물질’의 독성 위주로 고려하므로, 여러 물질이 혼합된 ‘제품’이 인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을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내외장용 소재로 적용되는 ABS소재(VE-0870)를 비롯한 폴리머(혼합물질) 제품 3개 그레이드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 측에 의하면 국내 기업 중 ‘제품’ 자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롯데케미칼이 처음이다.

롯데케미칼의 제품 위해성평가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한 K-C HESA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화평법 등록 시스템의 등록자료와 연계하여 제품의 사업장·작업자·소비자별 노출도를 측정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각 단일 물질의 위해성을 도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해당 자료를 종합해 제품 자체의 위

해성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유해성 정보 검증과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켄솔브)와의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홈페이지 제품사이트에 게시 및 국내외 고객사 등에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제품 위해성 평가를 통해 고객 대상으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품 관리정책을 확립할 것”이라며 “향후 평가 대상 제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 고객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품는다… “경쟁제한 없다”

공정위, 롯데케미칼 인수 승인
‘독과점 우려 없다’고 판단
2차전지 시장 치열한 경쟁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승인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내 2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0일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지난해 6월 미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지주회사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10월 일진머티리얼즈 주식 53.5%를 약 2조7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롯데케미칼의 이번 투자는 2차전지



롯데케미칼 대전연구소 전경.

/롯데케미칼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의 음극 집전체 등으로 활용되는 동박(copper foil)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박은 2차전지 및 인쇄회로기판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얇은 구리막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한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에서의 경쟁 변화를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은 다수의 유력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과편화된 시장으로 당사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내외, 전지용 또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시장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10% 내외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SK, LG 등 폭넓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번 결합으로 인해 당사회사의 종합적 사업역량이 경쟁사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은 2019년에 이미 동박 제조업체인 KCFT(현 SK넥셀리스)를 인수했으며 분리막(SK아이이테크놀로지), 음극재(SK머티리얼즈) 등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이다. LG그룹 역시 양극

재, 분리막 등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2차전지 소재 산업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기존 업체의 사업 확장과 신규 업체의 진입을 통해 향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전 세계 전지용 동박 수요가 2021년 26만5000톤에서 2025년 74만8000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이 이뤄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도 사업 확장과 사업자 간 협력을 위한 기업결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 대상 포함

환경부,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7월 1일 시행… 4년 내 허가 받아야

오는 7월부터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지난 2019년 기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물질이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7월부터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자료DB

허가 대상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시설허가대상 업종은 기존 발전, 소각, 철강제조 등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해당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4년 간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

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 산업 배출량의 0.3%에 그쳐 환경오염 시설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으로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코트라 ICT 컨소시엄 수출지원으로 계약 성과

9개 컨소시엄서 총 3200만달러 계약

KOTRA(코트라)는 해외 ICT 프로젝트에 컨소시엄형 진출을 지원하는 ‘2022년 ICT 수출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9개 컨소시엄에서 15건, 총 3200만 달러의 성약 성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ICT 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은 스마트시티, 보안, 5G 통신, 스마트팜, AI 분야 중소기업 42개사가 14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원을 받아 추진했다. 참가한 14개의 컨소시엄 가운데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개의 컨소시엄에서 수출 계약 및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ICT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컨소시엄형 진출이 유력한 방안임을 증명했다.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동시에 해외무역관을 통

해 수주나 계약을 위해 수 개월간 밀착 지원을 해오면서 성과를 거뒀다고 코트라 측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지역 광통신 기업 6개사로 구성된 ‘광통신 컨소시엄’이 중앙아시아 광통신 설치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에 합작법인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난 11월 우즈베크 텔레콤과 20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또한 ‘지능형 LED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마디운시의 가로등을 스마트 LED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68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스마트전구, 전기차 충전폴 분야 전문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보안 컨소시엄’도 이메일 보안 국제 표준화 기구(ITU-T)에 표준으로 채택된 것에 이어 일본, 베트남, 오만에서 3백만 달러 규모의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

남동발전 “소통의 기업문화로 기회 창출”

소통 토론회 열고 의견 나눠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9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남동발전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직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MZ세대와 조직문화’, ‘지속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자가 화두를 꺼내면 ‘세대, 성별, 직급, 직군’ 간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롭게 진행된 토론 분위기에 따라 참석자들은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 조직문화, 스마트 오피스 구현 등에 관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남동발전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안전 관리 체계강화와 대체건설 추진 방향을 위한 ‘공감 토론회’,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김희천 남동발전 사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힘은 소통의 기업문화에서 출발하는 만큼 바람직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중요하다”면서 “오늘의 이런 토론회문화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원관희 기자 wkh@

‘워크넷’ 인공지능이 연결해준 일자리 36%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작년 AI 서비스 취업자 5만7844명

지난해 정부 일자리 플랫폼 ‘워크넷’에서 인공지능(AI)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비율이 3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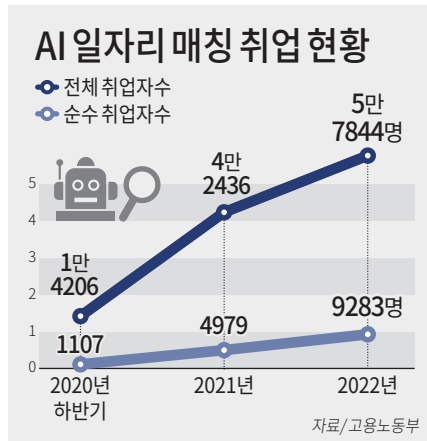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의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이 지난해 5만7844명으로 전년보다 36.3%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워크넷이 지난 2020년 7월 해당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취업자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또, 구인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구직자에게 입사를 제안한 건수도 3배 이상 늘었다.

AI 일자리 매칭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에게는 본인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구인 기업에는 구인 공고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및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을 강화했다”며 “서비스 도입 후 구직자의 통근 거리를 고려한 일자리 추천, 카카오 알림톡 내 서비스 유입기능 생성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자기주도성 발휘에 필수”… 초6·중3에 기초학력 집중교육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강화
올해부터 기초학력 미달학생 관리

초6, 담임교사와 협력 맞춤 피드백
중3, 교육청 프로그램 참여해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전환기 시기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를 운영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다층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교육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서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한다.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는 초등 6학년의 경우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등 3학년은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의 각 학교에서는 매 학년

마다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진단 도구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용 중인 대전교육청과 충남대 연구팀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있다. 이에 더해 학생들이 진급을 앞둔 전환기 시기

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다.

초등 6학년을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협력해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학습지원 튜터를 운영한다. 학습 공백이 확대되는 방학에는 자기주도학습 방법, 진로 탐색 등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련한 특별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육청 측은 초등 6학년 단계의 방학 프로그램이 주로 중학교 진학 적응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올해 시범 운영부터는 학습 코칭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등 3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기 직전인 만큼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 4가지 중 1가지 이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6월에서 7월 사이 진행되는 향상도검사에 미도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AI튜터링 보충학습(AI튜터링 이용 보충학습을 LMS 활용한 이수 관리) ▲중3 키다리샘 멘토링(국·영·수 중심 기초교과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집중 멘토링 실시 및 책임 지도) ▲도약캠프(자기효능감 및 진로인식 고취를 위한 집중 캠프) ▲보호자 책임지도 프로그램(보호자가 직접 선택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법·제도가 이를 명확히 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은 공교육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수 평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14개 대학 26개 학과서 정시 지원자 ‘0명’

경북 지역서만 10개학과 달해
인문계열 16개, 자연 10개 학과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 ‘0명’인 학과가 14개 대학에서 26개를 기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8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종로학원은 10일 해당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분석을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4개 대학의 26개 학과에는 지원자가 전무했다. 2020학년도에는 단 3개 학과에서만 발생한 상황으로, 4년만에 8배를 훌쩍 넘었다.

다만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서울, 수도권, 세종 등에서는 지원자 ‘0명’ 발생 학과가 단 한 개 대학도 없었지만, 경북 지역에서 10개 학과가 발생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16개 학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 자연계열에서 10개 학과가 발생하면서 인문계열(61.5%)의 지원자 미달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인문계열 학과에서는 A대학 항공 관련 학과 33명 모집에 지원자 0명, B대학 항공관련 학과 30명 모집에 지원자 0명, C대학 관광관련 학과 27명 모집에 지원자 0명 발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에너지관련 학과의 경우 64명 모집에 지원자 0명,

의식관련 학과 28명 모집에 지원자 0명, 건축관련 학과 19명 모집에 지원자 0명으로 드러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학들의 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시 지원 기회가 3회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으로 국한해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것은 정확한 상황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사실상 선발능력을 상실한 수시·정시 속수무책 대학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예상 시간보다 상당히 빠르게 급진전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대응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발표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책 효과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산업공정 발생 가스서 CO2 분리기술 개발

상명대 이주영 학생 논문, 학술지 게재

상명대학교는 이주영(사진) 생명화학공학부 화공신소재전공 학생이 단독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화학, 분자물리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저널의 12월호에 Cover Paper로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7,7,8,8-Tetracyanoquinodimethane 물질을 이용한 CuO(산화구리)와 CO2(이산화탄소) 분리’에 대한 응용(CuO Modified by 7,7,8,8-Tetracyanoquinodimethane and Its Application to CO2 Separation)’이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대기열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연소 과정에서 CO2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포집 기술이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집은 대규모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가스에서 CO2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주영 학생은 7,7,8,8-Tetracyanoquinodimethane이란 물질을 이용해 CuO의 표면을 변형하고 CO2의 용해도를 높여 CO2 분리막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는 곧 CO2 포집의 효율성을 높인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CO2를 경감시키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인 포집 기술과 환경 문제 관련 연구에서 학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하은 기자

국민대, 우즈베크에 융합형 IT학과 신설

타슈켄트정보통신대와 사업약정
2027년까지 500만달러 지원받아

국민대학교 글로벌개발협력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융합형 IT학과 신설한다.

국민대는 지난 12월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 취창업 연계형 비즈니스 IT 교육 역량강화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융합형 IT학과 신설 및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대의 융합형 IT학과 개설은 디지털 경제 혁신 인재 육성과 대학의 산학협력력을 통해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구축하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Tashkent Univ

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ies)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년 동안 미화 500만달러를 지원받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TUIT)에 ▲비즈니스 IT학과 신설 및 운영 ▲산학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비즈니스 IT 교수요원 양성 등을 추진해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경제를 이끌 혁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단순한 IT학과 신설을 넘어 리빙랩(living lab) 기반의 산학연계 운영체계 구축 등 지난 10여 년간 국민대가 축적해 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모델(LINC3.0) 구축의 경험을 전수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 있다.

/신하은 기자

교육부-청소년정책연구원
디지털 문해교육 성과공유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 참여단 성과공유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성과공유 한마당은 지난해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법을 탐구한 49개 학생 참여단(학생 동아리)의 활동 경험과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참여단 가운데 가짜뉴스, 사이버 언어폭력 등에 대해 토의하고 디지털 에절 캠페인을 벌인 ‘효행금쪽이’(경기 효행초), 디지털 이해력 브레인스토밍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탐구한 ‘페스타로직’(경기 하늘빛중), 가짜뉴스에서 사실 확인(팩트체크) 중요성을 알린 ‘Fact of 23 bros’(경기 수성고) 등 3개 팀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신하은 기자

성신여대 연구팀 논문, 국제 학술지 게재

융합보안공학과 학부생 등 참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학부생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논문이 국제 저명 학술지인 ‘컴퓨터스 앤 일렉트릭얼 엔지니어링(Computers and Electrical Engineering, IF 4.152)’ 2023년 1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에는 이일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미래융합기술공학과 교수가 지도교수이자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미래융합기술공학과 2학년인 박나은(제1저자), 이유럽, 주소영, 김소연 씨, 1학년인 김소희 씨와 융합보안공학과 4학년의 박주영, 김서이 씨가 함께 참여했다.

논문 주제는 ‘지능형 지속 위협 기반

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침입 탐지 프레임워크의 성능 평가(Performance evaluation of a fast and efficient intrusion detection framework for advanced persistent threat-based cyberattacks)’로 APT(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제시했다.

이일구 교수 연구팀(CSE Lab)은 오픈소스 도구인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과 경량 감사 데이터 수집기(Auditbeat), 마이터 어택(MITRE ATT&CK, Adversarial Tactics, Techniques & Common Knowledge)을 활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MUSICAL

용의자의 현신

가장 아름다운 해답을 가진
가장 완벽한 살인공식

2022.11.26 - 2023.1.29 | 한전아트센터

최재웅 | 김종구 | 조성윤 | 이지훈 | 박민성 | 오종혁 | 김지유 | 안시하 | 조순창 | 김산호 | 김지훈 | 김경록 | 장보람 | 박슬기 | 안소연 | 이다경
송형은 | 서재홍 | 김수영 | 송임규 | 김예진 | 안지현 | 박영빈 | 홍경아 | 이승현 | 지태인 | 장희원 | 김수영

극작·작사 정영 | 작곡·편곡 원미술 | 연출 정태영 | 음악감독 이수연 | 안무감독 홍유선 | 주최 (주)메타씨어터 | 제작 (주)신스웨이브
원작 히가시노 게이고 <용의자X의 현신> (문춘문고 간행) | 연극원작·각본감수 나루이 유타카 | 기획협력 NAPPOS UNITED, 문에춘추

전남도, 활기찬 노년 생활 돕는다… 일자리 6.7만개 확대

〈2026년까지〉

올 노인일자리 예산 2044억 투입
공익활동형 등으로 나눠 추진
수행기관 79곳에 전담인력 투입

전남도가 올해도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과 건강유지, 대인관계를 통한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 자리를 확대한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를 6만 7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노인일자리 수는 5만 6948개로, 지난해(5만 2938개)보다 7.6% 늘었고, 예산도 145억원이 증가한 2044억원이 투입 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과 사회 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민간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노인인력을파견하는 ‘취업알선형’으로



전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 중인 ‘실바카페’

/뉴시스

나눠 추진한다.

공익활동형은 가장 많은 5만 788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 노인 가정 등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를 하는 노노(老-老)케어, 취약계층 지원, 취미 생활지도, 체험활동을 하는 경륜전수 활동, 지역사회 환경 개선, 공공의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공공시설 봉사 등이 추진된다.

일자리 3492개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노인시설·장애인 시설 업무보조 등을 추진한다.

시장형 일자리는 일자리 2038개를 제공한다. 식품·공산품 제조·판매, 소규모 매장 운영, 유흥경지를 활용한 농산물 공동 경작·판매, 택배 물품 배송, 청소·시설관리 등이 포함된다.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630개 사업

을 추진한다.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파견해 일정 임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수행기관 79곳에 전담인력 385명을 투입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 활동과 사회구성원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8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으로 지역특성(농어촌)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익활동형 노인일 자리를 늘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양질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 고성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탈바꿈

고성군의 전통시장인 고성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서부 경남 오일장 중 최대규모인 고성시장에 2년간 총 10억 원 내의 사업비(1년 차 4억 4000만 원, 국비 50%)가 투입돼 ▲토요문화공연, 먹거리 장터 등 문화 콘텐츠 연계사업 ▲상인교육, 컨설팅 등 자생력 강화사업 ▲시장 페스티벌, 대표 먹거리 콘테스트 등 활성화 이벤트가 추진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목포시가 지역경제의 싹싹자라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올해 확대 운영하는 사업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운영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다.

시는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의 예산을 확충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강화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하동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예산 확대

주택수리비 등 추진

하동군이 귀농·귀촌 분야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펼친다.

대폭 확대된 사업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귀농인 주민초청행사지원’ 사업 ▲귀농인 주거안정을 위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이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작년 대비 사업량이 각각 15개 이상 늘었다.

새로운 시책은 ▲귀농·귀촌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사관학교 운영 ▲귀농 초기 농촌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

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1대1 밀착관리 귀농헬퍼 사업 추진 등이 있다.

또 ▲귀농·귀촌 홍보 활성화를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담은 가이드북 제작 ▲귀농귀촌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도시민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계속사업으로는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정 정착지원 사업 ▲귀농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귀농인의 자가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지원 사업인 귀농인 창업농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 지원

창원특례시는 3high(금리·물가·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창업을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내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작년과는 달리 제로페이 가맹 사업장 조건을 삭제하고, 지원 비율을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로 조정해 더 많은 소

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시스템 등의 디지털 기술 도입 비용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창업을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2월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내 구청 경제교통과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사진)와 이철우(왼쪽 사진 오른쪽)경북지사가 상호 양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후 피켓을 들고 기부제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경북도

전남지사-경북지사, ‘따뜻한 동행’ 실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응원

NH농협은행 방문해 서로 기부
전남·경북 상생협약 후 협력 강화

기영호남 상생협력과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로 따뜻한 동행 실천에 나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영록 지사와 이철우 지사는 각각 NH농협은행 전남도청 지점과 NH농협은행 경북본부 방문해 500만원을 서로 기부하고, 상호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했다.

양 지역은 지난 2019년 전남·경북 상생협약 이후 상생을 위해 각종 협력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이번 기부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맞아 서로 성공적 추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김영록 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기부 동참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양 지역 시·군의 자발적 참여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늘 기부 행사가 영호남인들이 교차 기부하고, 전남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겨울 송어 만나러 무안으로 오세요”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축제

전남 무안군은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쫄면과 찰진 겨울송어를 소재로 1월 14일(토)부터 15일(일)까지 해제면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수산시장 일원에서 펼쳐질 2023년 무안 겨울 송어 축제’준비에 한창이다.

2023년 새해 첫 축제이자 해제면 소재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먹거리 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길러 콘텐츠로 ‘황금송어를 잡아라’, ‘원데이클래스 송어초밥 만들기’, ‘무안 농수산물 구이터’, ‘농수특산물 짬뽕 경매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 및 판매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2023 고창 방문의해

홍보 서포터즈 출범

전북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일 군청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총 32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위촉장 수여와 서포터즈의 역할·운영방향 등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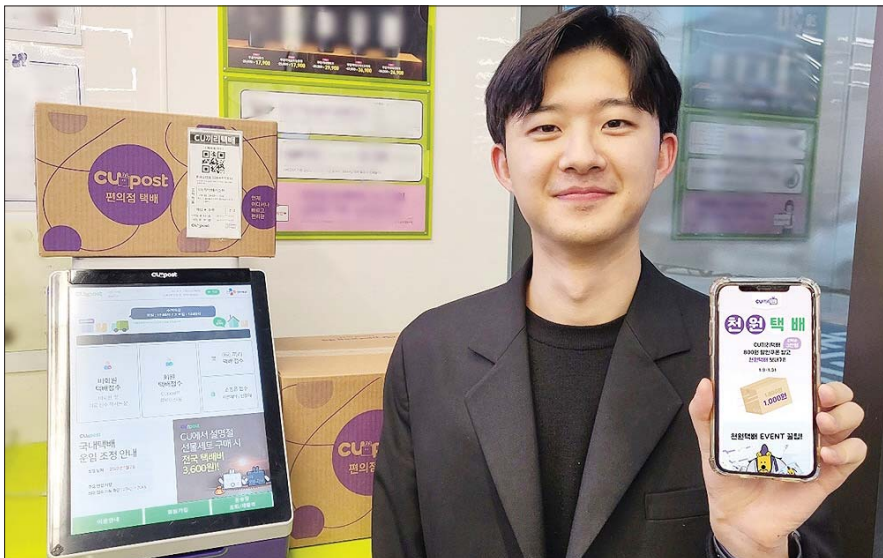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조금 불편해도 ‘반값’ 메리트… 편의점 점포간 택배 ‘대박’

GS25 ‘반값택배’ 대명사화 사용
유통업계 ‘틈새시장’ 성공사례

집앞 물품배송 안돼고 조금 느려
대신 가격 1600원~2400원대로
최대 6000원 일반택배보다 저렴

#취미로 문구용품을 수집하는 김정현(33)씨는 수집품을 사고 팔 때 매번 편의점 ‘반값택배’로만 사람들과 거래하고 있다. 김씨는 “3000원짜리를 사고파는 데 굳이 4000원씩 택배비를 내기도 그렇다 보니 반값택배로 거래하고 있다”며 “도착일자 불분명한 건 흠이지만, 도착하면 오가는 길에 픽업하면 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GS25와 CU가 운영 중인 점포간 택배 서비스는 매년 빠른 속도로 이용 건수가 늘고 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이 급하지 않은 물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되고 있는데, 특히 중고거래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GF리테일

편의점 점포간 택배 서비스가 ‘대박’을 쳤다. 편의점 점포간 택배는 GS25와 CU가 각 사의 편의점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편의점 점포 간 물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GS25가 2019년 먼저 ‘반값택배’라는 이름으로 론칭했고 CU가 2020년에 ‘CU끼리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선발주자인 GS25의 서비스명인 반값택배가 대명사화해 온라인에서는 브랜드 관계 없이 ‘반값택배’로 불

리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점포간 택배의 성공을 ‘틈새시장’ 공략의 성공사례로 본다. 편의점 업체만이 확보 중인 전국구 점포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택배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고안했기 때문이다. 택배 운임비보다 저렴한 물품이나, 배송이 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수요를 포착했다는 평가다.

점포간 택배는 배송기사가 집까지 배

송해주지 않고, 일반 택배보다 배송이 만 하루 이상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공휴일에도 접수, 배송도 가능하다. 두 곳 모두 택배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책정하는데, 0~500g에 대해 1600원, 접수 최대 무게인 5kg까지에 대해서는 2400원을 받는다. 일반 택배사인 CJ대한통운 기준 2kg 이하 물품 5000원, 5kg 이하 물품 6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반값에

도 못 미친다. 조금 불편한 대신 아주 저렴한 것이다. 최근에는 서비스 강화로 접수 후 2~3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실제 실적은 어떨까. GS25에서만 2022년 한 해 동안 오간 반값택배의 수는 1000만 건을 넘겼다. 지난해 상반기만 봐도 이용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었다. 지난해 8월 ‘택배 없는 날(8월13~15일)’에는 전년도 대비 이용건수가 214.8% 신장하기도 했다.

CU는 2020년 3월 CU끼리택배를 론칭한 후 지난해 2020년 대비 1069.9% 이용건수가 증가했다. 2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CU의 전체 택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에는 1.8%에 불과했지만 2021년 8.2%, 작년 한해에는 무려 15.8%의 수치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두 곳 모두 2030대의 이용이 압도적인데, GS25의 반값택배 이용자 80%는 20~30대 여성이다.

서비스의 인기로 GS25와 CU는 배송일 단축을 노력하는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한창이다. CU는 CU끼리택배 예약 서비스를 자체 멤버십 앱 ‘포켓CU’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고 9일 밝혔다. 앱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1월 한 달간 포켓CU를

통해 CU끼리택배를 이용한 고객 3만 명에게 800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서비스 강화 이유로 팬데믹 이후 변화한 일상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 온라인 쇼핑, 중고 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가운데 물가 인상으로 택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객들의 편의점 점포간 택배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객들의 다양한 이용 목적에 따라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거래에서 반값택배 이용이 크게 각광받으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편의점과 협업에 나서기도 했다. 10일 번개장터는 GS네트웍스와 제휴해 ‘GS25 반값택배’ 서비스를 번개장터 앱 내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알렸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의 배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GS25반값택배’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으며, 현재 높은 재이용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반응이 뜨겁다”며 “오픈 이후에도 기본 정보 연동 등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종이전단 폐지… 연간 나무 3000그루 보존

롯데마트, 친환경 경영 일환
앱·QR코드 이용 모바일 전단 운영

롯데마트는 10일 25년만에 종이 전단지 배포를 전면 중단하고 모바일 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종이 전단은 매주 행사를 알리는 중요한 홍보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일회용인 데다 지난 전단이 전량 폐기돼 자원 낭비를 야기했다.

롯데마트는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종이 전단 홍보를 전면 폐지하고 개편된 모바일 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150여톤의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간 20년생 나무 약 3000그루를 보존하는 것과 같으며 약 1만 6000여kg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로도 이어진다.

모바일 전단은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롯데마트GO’ 또는 매장 내 고지된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해당 주차의 새로운 소식과 행사 내용이 업로드된다.

롯데마트 측은 앞으로 간편하고 쉽게 모바일 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김정우 롯데마트 브랜드전략팀 전담 담당자는 “친환경 경영과 ESG가치 실현을 위해 20여년간 운영하던 1회용 종이 전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이제는 모바일 전단으로 고객들과 소통하고자 한다”며 “고객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고, 모바일 전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모션도 검토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하이트진로 ‘제로슈거 진로’ 첫 출고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 한층 강화

하이트진로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제로슈거 ‘진로’를 출시한다.

하이트진로는 경기도 이천공장에서 제로슈거 진로를 첫 출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로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상권의 업소 및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리뉴얼해 선보이는 제로슈거 진로는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하이트진로의 99년 양조 기술로 진로 본연의 맛을 유지했다. 특히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팀 오성택 상무는 “진로는 깔끔한 맛과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 MZ



하이트진로의 제로슈거 진로가 10일 이천공장에서 첫 출고를 앞두고 있다.

/하이트진로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소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4월 출시한 진로는 누적 14억명(지난해 12월 26일 기준)이 판매되며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로 성장 중이다. 지난해 1~11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뚜레쥬르 ‘오복 한가득’ 설 선물세트 선봬

우리쌀 톨케이크 등 제품 다양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선보이는 제품은 ‘오복(五福) 한가득’을 주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복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명절 선물 구매시 가심비를 중시하는 고객 성향을 반영해 제품과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복의 의미를 담은 단청과 오방색, 염원을 상징하는 색동·모란·까치 등을 적용한 화사한 패키지로 선물의 품격을 높였다.

대표 제품 ‘우리쌀 톨케이크’는 우리쌀로 만든 시트와 콩고물 크림이 어우러져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골든 휘낭시에 세트’와 ‘모나카와 양갱



오복 한가득 선물세트.

/CJ푸드빌

이 오복오복’은 어르신들에게 인기있는 디저트로 구성했다.

특히 ‘모나카와 양갱이 오복오복’은 다양한 복의 의미를 담은 단청을 모티프로 한 패키지 속에 통단팥·흑임자 모나카와 팥·밤·호박 양갱을 풍성하게 넣어 명절 선물로 제격이다.

1월 17일까지 뚜레쥬르앱을 통해 설 선물세트를 사전 예약하면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갤러리아백화점, 4500만원 한정판 ‘플래티넘 주빌리 70년’

갤러리아백화점이 4500만원에 육박하는 고급 설 선물세트로 한정판 위스키 ‘플래티넘 주빌리(Platinum Jubilee) 70년’을 공개했다. 입고 수량은 단 1병이며 명품관에서 판매한다.

플래티넘 주빌리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출시된 위스키로 고든앤맥패일의 가장 오래된 싱글몰트 위스키 중 하나다.

여왕이 왕위에 오른 1952년 증류해 70년 동안 셰리 와인 숙성에 사용했던 목조통(50리터)에 숙성했다.

여왕 즉위 기념일인 지난해 2월 6일 병입 후 전세계에 단 256병만 공개했다. 용량은 700ml, 도수는 52.3% 이다. 갤러리아는 오는 21일까지 전 지점에서 2023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 중이다.

/김서현 기자

햇반 솔반 한정 기획상품 ‘정성한상’ 선봬

전통 디자인 브랜드 미미달과 맞손

즉석 영양 솔밥 브랜드인 CJ제일제당 ‘햇반 솔반’이 새해를 맞아 특별 한정 기획상품 ‘정성한상’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한국 전통 솔밥의 원리로 정성껏 지어낸 햇반 솔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전통 디자인 브랜드인 ‘미미달’과 손잡고 기획됐다.

고려청자 문양으로 디자인된 패키지에 전북내장영양밥, 불고기버섯영양밥, 뿌리채소영양밥, 꿀약밥 각 2개씩이 담긴 일반세트 상품과 여기에 고려청자 컵



햇반 솔반 미미달 정성한상 기획세트 /CJ제일제당

코스터 2개가 추가된 기획세트 상품 두 가지로 선보였다. 시즌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에서 구입 가능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도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3년 만에 열리는 14회 ‘유일한상’ 수상자에 김우주 교수

(고려대구로병원)

코로나19 방역 정책 수립 큰 역할
바이러스 감염병 국내 최고 전문가
과학적 근거 기반 둔 방역정책 강조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열리는 유한양행의 ‘유일한상’ 수상자로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한양행은 제14회 유일한상 수상자로 김 교수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육제 유한양행 사장은 오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조선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유일한상 시상식에서 김우주 교수에 상패와 상금 2억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유일한상은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해 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한 해를 건너 뛰면서 제14회 시상식은 2019년 이후 3년만에 열리게 됐다.

유일한상심사위원회 한승수 위원장은 “고(故)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바이러스 퇴치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했다”며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방역 정책 수립 및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민보건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학술적·사회적·정책적 공로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병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계절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한 선구자로 꼽힌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체계(KISS)를 구축하여 공공보건에 기여했으며, 2010년부터 신종인플

루엔자 범부처사업단 단장으로 바이러스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공동위원장, 즉각대응팀장 등을 맡았고 지금은 대한백신학회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자문 또는 직접 통제에 나서 국내 감염병 치료 및 예방 관리 정책 향상에 크게 공헌해 왔다.

김 교수는 특히 2020년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려대 의과대학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그 공로로 대통령 근정포장(2006년),

보건복지부장관표창(2010년), 대한의학회 바이엘임상의학상(2019)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전염병 팬데믹 어떻게 해결할까?’ ‘차이나는 클래스: 의학·과학편’ ‘신종바이러스의 습격’ 등이 있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유일한상’은 일평생을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교육인으로, 그리고 사회봉사자로 살다간 고 유일한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제정했다. 매 2년마다 수상자의 연료이나 경력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올린 인사를 발굴 선정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스맥스, CES서 기술중심 ‘뷰티테크’ 제시 제일약품, ‘씨잘’·‘지르텍’ 독점 공급

서울대 소프트파운드리연구진 협업
맞춤형 스마트 이온 패치 등 선보

코스맥스가 서울대학교 소프트파운드리연구소 연구진과 협업해 개발한 혁신 뷰티 기술을 CES 2023에서 공개했다. 미세전류로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인 마스크팩과 초정밀 피부탄력측정기 등 기존의 성분 중심 화장품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 중심의 ‘뷰티테크’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코스맥스는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전시회 CES 2023 부스 전시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된 기술은 ▲초박막 갈바니 마스크팩 ▲맞춤형 스마트 이온 패치 ▲생분해 소재 적용 패치 ▲하이드로겔 힐링 패치 ▲초정밀 피부탄력측정기 등으로 기본 원리는 사람의 피부에 흐르는 생체전류와 유사한 미세전류를 활용하는 것이다.

초박막 갈바니 마스크팩은 종이 두께



코스맥스는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전시회 CES 2023 부스 전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소프트파운드리연구소 연구진과 협업해 개발한 혁신 뷰티 기술을 공개했다.

보다 얇은 배터리와 그래핀 시트를 결합해 빠른 유효성분 흡수를 돕고 탄탄한 피부를 구현한다.

맞춤형 이온 패치는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전압을 조절하여, 피부 상태에 따라 유효성분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또 생분해성 배터리를 부착한 패치는 일정 시간이 지

나면 자연에서 분해되어 친환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이드로겔 힐링 패치는 별도의 배터리 없이 일상적 움직임으로 생성되는 전압을 통해 상처 치유를 가속화하고 근육 긴장 완화 효과를 내는 점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알레르기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한국유씨비제약의 대표적인 알레르기 치료제인 ‘씨잘’과 ‘지르텍’ (사진)을 제일약품이 판매한다.

제일약품은 한국유씨비제약과 ‘씨잘정’, ‘씨잘액’, ‘지르텍 100정’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 공급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르텍’은 60개국 이상에서 판매중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항히스타민제다. 알레르기성 비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은 물론 습진 등에도 적응증을 보유한 의약품으로 알레르기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준다.

‘씨잘’은 ‘지르텍’과 약물 성분 및 효과는 비슷하나 ‘지르텍’의 주성분인 세티리진 중 약효를 주로 나타내는 R-거



울상 이성질체 세티리진만 분리하여 개발한 전문의약품이다. 약효가 신속하게 나타나며 오래 지속되는 이점이 있다. ‘씨잘’은 정제 형태인 ‘씨잘정’과 액제 형태인 ‘씨잘액’ 두 가지 제형으로 다양한 연령에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씨잘액’은 유소아 복용이 편리한 액상 제형으로 1세 이상부터 복용할 수 있다. 두 약물 모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 하이드로코티손 외 용제와 병용 시 습진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D-판테놀 연고 패키지 리뉴얼

‘판디’ 캐릭터 적용

동아제약은 피부염 상비약 D-판테놀 연고(사진)가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동아제약 자사 제품인 어린이 해열·감기약 챔프의 캐릭터인 ‘판디’를 적용했다. D-판테놀 연고는 영유아에게 친근한 판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영유아 토달케어 브랜드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D-판테놀 연고는 끈적이지 않고 흐르지 않는 제형으로 피부염, 기저귀 발진, 상처, 화상, 팍팍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 가능한 피부 연고다. 주성분인 텍스판테놀은 피부 재생, 상처 촉진 및 겨울철, 환절기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휴대하기 편리한 튜브 용기와 원터치 캡을 적용

한 것이 특징이며,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기반으로 D-판테놀 연고가 영유아 토달케어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며 “D-판테놀 연고는 스테로이드, 향료, 보존제, 향생제, 타르색소가 포함되지 않은 5無 브랜드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피부 연고”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2023년 참가자 모집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운영하는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가 2023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센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시급하게 금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금연캠프는 금연약물, 흡연과 질환, 금연과 영양관리 등의 교육과 개인 및 그룹 심리상담, 건강체조, 캘리그라피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금연캠프에 입소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알리며 금연캠프 참가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중남미 지역 입지 강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브라질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규모 입찰 시장에서 연달아 수주에 성공하며 중남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중남미 최대 제약시장인 브라질에서 2년 연속 자가면 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입찰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상반기에만 램시마 총 34만 2000바이알을 브라질 연방정부 시장에 독점 공급하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입찰 수주에 성공한 브라질 연방정부는 전체 인플릭시맵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에도 경쟁사들을 제치고 단독 수주에 성공하며 램시마를 브라질에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중남미 지역에

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 시장인 브라질을 선점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램시마 뿐만 아니라 트룩시마, 허쥬마 등 모든 제품들의 입찰을 성공적으로 수주했으며, 올해 예정된 리톡시맵 및 트라스투주맵 입찰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허가 받은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 역시 올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어서 포트폴리오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성과는 브라질의 중남미 지역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주요 국가인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에서 램시마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에서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이 모두 95% 이상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재 중남미 6개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세경 기자

Krispy Kreme DOUGHNUTS × miffy



HAPPY NEW YEAR with MIFFY

KRISPY
KREME



RICE
FLAVOR

HAPPY MIFFY



CHOCO

LUCKY MELANIE



Illustrations Dick Bruna © copyright Mercis bv, 1953-2022

LOVELY RABBIT FOOT

MELON



CARROT

CARROT GARDEN

Krispy Kreme DOUGHNUTS



‘씨름 부흥 위하여’… MG새마을금고, 씨름단 창단

새마을금고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회관 1층 MG홀에서 'MG새마을금고씨름단' 창단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MG새마을금고씨름단은 19개 팀 중 유일한 기업팀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씨름단기’를 흔들고 있다. /MG새마을금고



김포공항, 모·자회사 모여 안전실천 서약 다짐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9일 김포공항에서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경영활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2023년 김포공항 모·자회사 안전실천 서약 결의식'을 개최했다. 김두환(1열 왼쪽부터 5번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박승찬(1열 왼쪽부터 4번째) 항공보안파트너스(주) 김포지사장, 최준림(1열 왼쪽부터 6번째) KAC 공항서비스(주) 김포지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MobED와 B.B.레빗의 신비로운 여행’ 전시장 전경.

현대차 계묘년 맞이 ‘모베드 NFT’ 전시회

현대자동차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癸卯)년을 맞아 토끼 캐릭터로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현대차는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에서 착안한 모베드 대체불가토큰(NFT) 캐릭터와 일러스트 작가 부원의 토끼 캐릭터 'B.B.레빗'의 협업 전시 'MobED와 B.B.레빗의 신비로운 여행'을 이달 31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특유의 익살스러움이 돋보이는 토끼 캐릭터 B.B.레빗으로 잘 알려진 일러스트 작가 부원과 함께 모베드 NFT 캐릭터와 B.B.레빗의 여행을 담은 작품을 통해 다가온 토끼의 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캐릭터의 여정은 캔버스 아트부터 피규어까지 총 6점의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BBQ 대학생 봉사단 ‘올리버스’ 모집

치킨 프랜차이즈 그룹 제너시스BBQ는 오는 26일까지 대학생 봉사단 ‘올리버스(Olive Us)’ 2기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리버스 2기는 오는 2월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월 1~2회 홀몸 어르신,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무료급식소 등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은 BBQ 올리버스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단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졸업 예정자로 서류, 면접 전형을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신원선 기자

제약산업 이끈 원로모임 ‘팔진회’, 48년 동행 마무리

제약기업 1세대 오너들 결성
보건의약계 자문 역할 등 헌신
건강상 등 문제로 모임 해산
회비는 제약바이오협회 기탁

한국 제약산업을 일으키고 이끌어온 대표적 원로 모임 ‘팔진회(八進會)’가 아름다운 48년의 동행을 마무리했다. 8명의 원년 멤버 가운데 3명은 고인이 됐고,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3명만이 마지막 모임을 함께 했다.

팔진회는 지난 1975년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오너 경영인 8인이 제약산업계의 발전을 도우면서 ‘여덟 사람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담아 만든 친목모임이다.

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회장과 보령 김승호 회장, 이종호 JW중외 제약 명예회장,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유영식 옛 동신제약 회장, 지금은 고인이 된 윤영환 대웅제약 회장·어준선 안국약품 회장·허억 삼아 제약 회장이 의기투합해 결성했다.

팔진회가 출범한 1975년은 석유



제약업계 원로 모임 팔진회가 48년간 이어져 온 모임을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회비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기탁했다. (왼쪽부터)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김승호 보령 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동으로 인한 성장둔화와 고물가, 국제수지 악화 등 3중고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의 도전과 성장이 돋보였던 시기였다. 제약산업은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연평균 34.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이같은 고도성장은 동아제약을 비롯한 당시 주요 제약기업들의 건실한 경영과 제품 개발 경쟁의 산물이었다.

이후 팔진회 제약기업 1세대 오너들의 지휘아래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제약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팔진회는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고, 48년간 지속해온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승호·윤원영 회장과 이종호 명예회장은 이날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오찬을 갖고 팔진회 활동 마감의 뜻을 밝히면서 남아있는 회비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써달라며 협회에 기부했다.

팔진회는 그간 48년의 역사를 이

유통가,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훈훈’

롯데 7000억, 현대百貨 3500억
GS 1800억 등 앞당겨 지급

유통업체가 설을 앞두고 가맹점과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명절 상여금과 거래기업 대금 결제 등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1만 4000여 개 파트너사에 납품대금 약 7000억원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칠성음료, 롯데알미늄, 롯데정보통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롯데그룹 27개사가 동참하며 1월 말 대금 지급일을 평균 12일 앞당겨 오는 20일까지 지급 완료한다.

롯데는 2013년부터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파트너사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해 2018년 대기업 최초 전 계열사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GS리테일도 GS25 가맹 경영주와 협력사에 총 1800억원 규모의 정산금과 물품 대금을 조기지급하기



GS25 경영주와 본부 직원이 함께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리테일

로 했다.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등에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의 물품 대금은 16~18일까지 앞당겨 순차 지급하고, GS25 가맹 경영주의 정산금은 20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지급일 대비 최대 20여일 앞당긴 일정이다.

오진석 GS리테일 플랫폼B/U장(부사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맹 경영주 및 협력사 지원을 위한 대금 조기 지급을 추진하게 됐

다”며 “가맹점, 협력사와 동반성장하고 상생 문화를 구축해 가는데 GS리테일이 지속 앞장 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1만 4000여 중소 협력사의 결제 대금 350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3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이달 18일에 지급한다.

이번에 결제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는 중소 협력사는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5000여 곳을 비롯해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L&C·현대이지웰 등 12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9000여 곳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이번 조기 지급이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0일과 15일에 3000여 개 협력사에 5000억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T&G 상상마당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 내달 10일까지 모집

KT&G 상상마당은 국내 창작 뮤지컬 지원 프로그램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의 지원 작품을 9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6회를 맞는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는 창작 뮤지컬을 지원해 공연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는 오는 9~10월에 공연 가능한 국내 창작 뮤지컬로, 초연 작품부터 새롭게 수정과 보완을 진행하려는 재공연 작품까지 폭넓게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1개 작품은 공연 제작 지원금 1000만원,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공연장 및 음향, 조명 등 보유 장비들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사

◆**농촌진흥청** ◇승진 △국립농업과학원장 이승돈

◆**KB금융지주** ◇승진 △전략기획부장 신학철 △ESG전략부장 전운재 △모델검증부장 정관오 △재무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창원 △브랜드전략부 팀장(부서장대우) 김태현

◆**KB국민카드** ◇부장 신규 △기업고객사업부 박화창 ◇지점장 신규 △울산지점 선왕건

◆**KB국민은행** ◇승진 〈부장〉△정보보호부(고객정보) 김동선 △국군마케팅부 김빛남 △구조화금융3부 김형태 △글

로별지원부 남유우 △개인고객기획부 민경호 △자본시장영업2부 박웅 △인프라지원부 박현수 △글로벌지원부 성은주 △디지털신사업부 손철원 △코어뱅킹부(코어뱅킹1부) 신민철 △감사부(디지털감사) 신정호 △채권운용부(채권운용1부) 안영섭 △데이터솔루션부(데이터3부) 이명진 △대기업영업본부(영업지원) 임병욱 △WM투자솔루션부(투자솔루션2부) 조영욱

부음

▲황도재씨 별세, 정건수(여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옥수·종수·영수·

금수·순재씨 모친상 = 용인시민장례문화원(구 용인장례식장) VIP(4층), 발인 12일 오전 7시. 031-334-4444

▲장도훈씨 별세, 장민구(KBS PD)·장민권(파이낸셜뉴스 산업IT부 기자)씨 부친상=9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7시20분, 02-797-4444

▲김부영(전 창녕군수)씨 별세, 김병희씨 부친상=9일,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창녕군공설장례식장 1호,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055-533-8510

▲한상찬씨 별세, 한계희(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씨 부친상 = 순창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빈소, 발인 12일. 063-

650-5444

▲임창석씨 별세, 석재동(충청타임즈 편집국장)씨 장인상 = 10일 오전6시,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2일 낮 12시. 043-269-6969.

▲박근호씨 별세, 박병찬(한국엔지니어링협회 상근부회장) 부친상 = 10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8빈소(11일 3호실로 빈소 이전), 발인 12일 오전 7시, 장지 정수원-괴산호국원, 02-3019-3211

▲김용기씨 별세, 김남형(삼성 라이온즈 마케팅팀장)씨 부친상 = 1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2-3410-6909

아무 생각 없이 만든 尹 연하장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칠곡할매글꼴’이 화제다.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해서다. 지난 2일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 공무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서체로 해당 글꼴을 사용했다.

연하장에는 “76세 늦은 나이에 경북 칠곡군 한글 교실에서 글씨를 배우신 권안자 어르신인 서체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이 글꼴은 2020년 처음 나왔으며, 한컴과 MS오피스에도 탑재됐다.

‘칠곡할매글꼴’ 보도에 뒤덮여 금시에 잊혔지만 각계 인사들에게 발송한 대통령 신년 연하장 또한 도용·표절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연하장 이미지가 상업용 사진·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셔터스톡(Shutterstock)에 등록된 것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다.

실제 ‘프림야우(primiao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작가가 공개한 기존 일러스트와 연하장 이미지는 판박이에

가깝다. 성형수술, 부처, 소주 등의 몇몇 그림을 철삭한 것을 제외하면 누가 봐도 같은 작가의 작품이다.

표절 논란에 대통령실은 “적법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연하장에 활용된 디자인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형상화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연하장 제작을 의뢰받은 업체가 작가 쪽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허락받은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들었다)는 얘기가.

그런데 높은 예술성을 지닌 한국 작가도 많은데 굳이 외국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구태여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 및 도시 이미지를 반복 제작해 팔아온 상업 작가의 것을 썼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성의도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보내는 연하장지곤 국경 철학이나 이미지 자체에 관한 정성 따위도 녹아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표절 논란이 일자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보도 자료를 보면 마치 자체

적으로 ‘창작’ 한 것처럼 적어 놨다.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지의 차별성과 독창성 역시 현저히 낮다. 뷰티, 한옥, K팝, K무비, K드라마, 한복, 김치 등등, 이것저것 죄다 구겨 넣어 원본에 비해 오히려 조악하기까지 하다.

작가 이력 검증에도 소홀했다. 대통령 연하장 이미지를 그린 이스라엘 작가는 과거 일본 제국과 일본군이 사용하던 국기이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旭日旗)’를 다른 그림 곳곳에 새겼다. 주지하다시피 ‘욱일기’는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깃발과 같은 의미의 전범기(戰犯旗)다.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일본이 전범국이고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것을 잘 모른다. 일본이 애써 강조해온 것처럼 ‘전통문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마저 그런 인식에 동조한 채 역사의식에 결함이 있는 작가의 그림을 사용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그런 작가가 그린 이미지를 정부는 돈까지 주고 구입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술평론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기 지 수 첩

김 대 환
(건설부동산부)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였고, 청약당첨 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규제를 폐지했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는 확대됐다.

이번 정책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26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해 급격한 집값 상승을 유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얻은 ‘규제는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란 교훈을 받아들인 윤석열정부의 이번 정책은 시의적절하다.

1·3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핵심 인물인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지우기에 반발해 정책 포럼을 결성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란 주제로 여론조사 기관 ‘더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47.5%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했다. ‘성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8%에 불과했다.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42.0%가 ‘LTV 규제’를 꼽았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에선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전 정권의 몰락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이끈 주역들이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뭉친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나는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멈추기 위해선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초석은 규제 완화에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가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대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임대차 3법 개정, 세금 개편 등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

/kdh@metroseoul.co.kr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4			3		8
		2	4		7
	8				
				3	
5	6				2
			1		9
	1				2
8				9	4
			1	7	3

	1		6			
4	8			5	3	
				8		
8			6	5	7	
	7		9			
	5	9	1			
			2			3
					8	
						6

정답

5	8	1	9	7	6	2
7	1	6	9	2	8	3
2	3	9	7	6	8	1
6	9	8	2	5	1	8
2	1	6	8	7	8	9
8	7	9	8	1	2	6
8	9	7	9	2	6	1
1	6	2	8	7	9	2
9	8	2	1	8	6	2

9	2	1	8	8	9	6
7	1	8	9	6	9	2
9	8	6	7	2	8	9
2	7	8	1	6	9	9
8	9	9	2	6	1	8
1	6	2	9	9	8	2
8	9	9	8	1	7	2
6	2	1	8	9	2	9
2	8	7	6	2	9	8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1월 11일 (음 12월 20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썩지 않으려면 물은 흘려 보내야. 48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60년생 조상님 제사는 지극한 마음으로. 72년생 이별이 슬습하면서도 슬프다. 84년생 학습효과를 반복해서 오니 도전정신을 함양.	
 소	37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49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61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매사에 자중하라. 73년생 자기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85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으니 로또를 사볼까.	
 토끼	38년생 서예를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50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풀린다. 62년생 확실한 의사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74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86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이르다.	
 토끼	39년생 나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51년생 회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63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쉬지 말고 노력. 75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 87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일도 잘 풀리는 행운.	
 양	40년생 머느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52년생 과대포장은 상대가 실망. 64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76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결국 성공으로 측정. 88년생 힘든 일은 자식의 도움으로 해결.	
 원숭이	41년생 인색하다보니 만남에서 실수를 한다. 53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65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77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89년생 똥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말	4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모임을 자제. 54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66년생 머리가 좋다고 잘사는 것은 아닐 텐데. 78년생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도 해볼 만하다. 90년생 가진 돈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지출을 해야.	
 양	43년생 머리는 하늘을 이듯 조상을 숭배. 55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67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79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91년생 점(占)은 숫자의 과학이니 미신이라는 말은 무지함.	
 원숭이	44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56년생 길 한낱을 잡아서 이사를 하도록. 68년생 음식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시각적 맛도 탄생. 80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92년생 장수선무(長袖善舞)도 실력이다.	
 닭	45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이다. 57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9년생 주변을 원망하기보다는 일의 장에 이유를 찾아보자. 81년생 어항 속 물고기 처럼 변화가 없다. 93년생 진실은 밝혀려 들수록 때가 묻는다는 말이.	
 돼지	46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가려서 하라. 58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70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82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94년생 슬픔도 시간이 가면서 지나간다.	
 돼지	47년생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실행. 59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한가하게 뱃놀이. 71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83년생 직장에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95년생 비판 불평을 피하며 다시 하려는 의지만으로도 가피를 이어받는다.	



김상회의四季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일화이자 역사이다. 오랜 옛날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의 이름난 싸움꾼이자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른다. 누구도 대적하기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상대로 결투를 자청하고 나선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쪼마 녀석이 겁도 없이 나선다면서 코웃음을 쳤다. 다윗은 시냇물에서 주운 차돌을 물매에 넣어 마치 고무줄 통을 쏘듯이 골리앗을 향해 쏘았다. 쏜살같이 날아간 차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똑바로 맞았다. 골리앗의 거대한 몸은 힘없이 쓰러졌다. 이에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기에 바빴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듯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 뒤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대가 맞설 때 ‘다윗과 골리앗’ 같다고 얘기한다.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그러한 역사가 살짝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념이 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오래 걸려도 일주일 안에 종지부가 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예측들을 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도 만만치 않지만 러시아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개전 직후 미국이 제안한 국외도피를 거부하며 “내전(도피용)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고 외친 젤렌스키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올라갔고 국민들은 결속했다. 반면 군사적 강국인 러시아의 푸틴은 체면을 구겼고 사면초가에 갇힌 것 같은 모양새다. 누구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도울 때 하늘이 돕지 않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0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0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30대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 패널티 등 영향도

중기중앙회, 협력사 ESG관리현황
패널티 부여 16곳, 인센티브 13곳
협력사 수준미달 부정영향 30%
우수등급 획득시 긍정영향 24%

30대 대기업 가운데 26개사가 협력사들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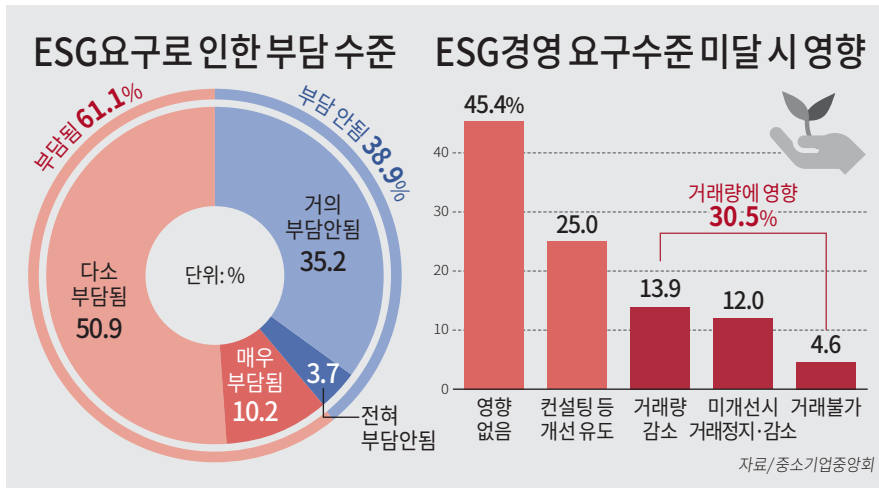
이를 통해 협력사에 주는 일감 수준을 결정하거나 가점(인센티브)·감점(패널티)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기업들은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할 때 인센티브보다 패널티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항도 많게는 120개 이상으로, 갈수록 더 많은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대응 역량 확보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협력사 10곳 중 4곳은 대기업으로부터 ESG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대기업 30개사(공기업 3개사 포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과 ESG평가 담당부서 설문, 협력사 108개사 설문을 통해 10일 내놓은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30대 대기업 중 86.7%인 26곳이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엔 17개사(56.7%), 2020년엔 20개사(66.7%)이던 것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의 공급망 ESG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협력사에 대해 ESG 평가를 하는 26개사 중 18개사(69.2%)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구매정책에 반영하는 18개사 중 패널티를 주는 곳은 16개사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3개사보다 많았다. 또 인

센티브만 주는 곳은 3개사, 패널티만 부여하는 곳은 5개사로 대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 결과를 구매정책시 감점 요인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 중소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도 ESG 경영요구 수준 미달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30.5%)이 평가 우수등급 획득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24.1%)보다 많았다.

'인센티브'는 물량을 늘리거나 우선권을 주고,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것 등을 말한다. '패널티'는 물량 축소, 입찰제한, 거래정지, 시정조치 요구 등을 의미한다.

ESG 평가항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조사 결과 평가항목은 적게는 30문항부터 많게는 120개 이상으로 환경, 안전, 인권, 보건, 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관련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집계하고 있는 대기업은 14개사(46.7%)였다. 현재 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대기업들도 향후 측정·공개할 계획이어서 협력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 요구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협력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설문에 응답한 108개 협력사의 경우 58.3%가 거래 대기업의 ESG 평가 수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 중견기업 협력사인 한 중소기업 담당자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ESG 평가에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ESG 평가내용이 중소기업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길 원하는 항목으로는 ▲ESG 관련 시설·설비 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대기업의 ESG 관련 지원이

'없다'고 답한 협력사는 42.6%에 달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설비·자금 지원'은 4.6%에 불과했다. 관련 교육 지원이 39.8%, 컨설팅이 25%로 비교적 많았다.

대기업들도 협력사의 ESG 능력 제고 등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대기업 ESG 평가 담당자들은 "영세한 협력사들도 많아 관리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고민된다"며 "대부분의 협력사가 아직 ESG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인력·설비 부족 등 ESG 경영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ESG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업종별 컨설팅·가이드라인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향상은 곧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대기업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평가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시설·비용지원 등의 지원이 수반돼야만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지원 벤처 87곳 'CES 혁신상' 수상

국내 수상기업 111곳 중 78% 달해
7년 이내 창업기업 91곳 '역대최다'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CES 혁신상(Innovaion Awards)을 수상했다.

역대 최다 실적이다. 이 가운데 87개사(78.4%)가 팁스(TIPS), 사업화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CES에선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스마트시티(Smart cities), 로봇공학(Robotics) 등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CES 혁신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이 포함됐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창업기업으로 집계됐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91개사(67.9%)가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2019년 당시 7개사가 수상하는데 그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가 적었던 2021년(23개사)을 제외하고는 혁신상 수상 기업이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CES 2023 전시회에서 K-스타트업관 참여기업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중기부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상기업(71개사)이 크게 늘어나 올해는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혁신 분야별로는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와 '소프트웨어(Software)·모바일앱(Mobile Apps)' 등 총 19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32개 제품(26.4%)이 수상해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다.

이어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분야에서 25개 제품(20.7%)이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헬스케어와 IT·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큰 강세를 보였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K-STARTUP)관'에 참여한 51개사 창업기업 중에서도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27.5%)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수상 기업은 라오나크, 세븐포인트원, 슈퍼노바, 에바, 에어딕, 에이유, 인디제이, 인핸드플러스, 큐링이노스, 디엔에이코퍼레이션, 마스오토, 스마트스코리아, 알고케어, 비컨이다. /김승호 기자

교원스타트원, 역직구 물류대행 사업 확대

쇼피코리아와 맞손

교원스타트원이 쇼피코리아와 손잡고 역직구 물류 대행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10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스타트원의 성수물류센터는 쇼피코리아의 신규 배송 서비스 '셀프 드랍 오프 서비스(Self Drop-Off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돼 국내 판매자들의 원활한 해외배송을 돕는다.

셀프 드랍 오프 센터는 판매자가 배

송할 물품을 직접 입고 처리하는 배송 거점이다. 쇼피코리아가 운영하는 '쇼피 물류 서비스(SLS)' 일환으로, 여기에 모아진 물품은 최종 집하지인 물류센터로 이동해 해외 현지 고객들에게 배송한다.

이번 사업 제휴로 교원스타트원은 역직구 물류 대행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쇼피코리아는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입점 판매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31일까지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제12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10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벤처캠프'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9일) 현재 창업 후 3년 이내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

업자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60개 내외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전형 외에도 지역균형·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도 추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와 중기부 창업포털 K-스타트업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버스타미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조합원 채용 강요하다 구속 /사진 뉴시스
▲ 종로학원 "정시 지원 '0' 학과, 3년 새 3개→26개 폭증"

▲ 국민 절반 "사회재난 대응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있다"
▲ 시민단체, '北 무인기 사태' 국방장관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국세청, 빚썸코리아·빚썸홀딩스 특별 세무조사 착수
▲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공개검증하라" /사진 뉴시스

경기도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 정책에 5년간 5.6조 투입

생활안정·주거 등 6개 과제 마련
우대·장려 아닌 고립방지에 방점
1만 여성가구에 안전용품 패키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신규 추진

경기도가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도내 1인가구를 위해 5년간 5조 6430억 원을 투입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등 37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마련한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다.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도민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 번은 1인가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1인가구 지원을 보편 정책으로 접근하며, 1인가구에 대한 우대나 장려가 아닌 고립 방지에 방점을 두고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 생활안정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5년간 5조6430억 원(국비 4조 6000억 원, 도비 593억 원, 시·군비



경기도청 전경.

4927억 원, 기타 41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4조7936억 원, 다양한 사업으로 84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5개 신규과제가 새롭게 포함됐는데, 우선 올해부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고령의 1인가구 등을 위해 민간서비스 4분의 1 정도 이용요금만을 받고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점점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연간

2500만 가구씩 4년간 총 1만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창문잠금 장치, 문열림 센서 등 안전용품을 담은 여성 안심패키지를 보급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주요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민간 전문가와 시군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국 소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전담할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경기도 1인가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서울시,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9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보일러 8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이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인 2020년 4월 3일 이전에 단 가

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교체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12% 높아 도시가스 비용으로 연간 약 100만원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자치구를 방문하면 된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전 도우미 모집

서울교통공사, 일 3시간30분 근무

서울교통공사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역에서 승객 이동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 19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 도우미는 승객이 많이 몰리는 주요 혼잡 역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시민은 안전관리 도우미에 참여할 수 없다.



출근길 주요 역사서 승객을 안내하는 도우미.

1세대에 1명만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 등

은 채용 시 가점을 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다. 공사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2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무 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8월22일까지다. 보수는 주 5일간 하루 3시간 30분 근무(오전 6시30분~10시)를 기준으로 일 3만4000원 수준이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승객이 많은 출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도우미 인력을 배치,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홍콩서 글로벌 투자자에 금융 허브 ‘서울’ 알린다

서울투자청, 아시아 금융포럼 참여
국내 핀테크 기업 소개, 투자 유치

서울투자청은 홍콩을 찾아 130여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 허브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서울투자청은 자산관리와 블록체인의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갖고, '친(親)서울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이달 11~12일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아시아 금융 포럼은 홍콩 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HKTD)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세계 금융, 경제 분야의 영향력 있는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경제 전망 인사이트와 정보를 교류하고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자리다. 서울투자청은 포럼에 함께하는 각국의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서울 세일즈'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포럼에는 HSBC, Bank of China, UBS 등 거대 금융기업과 국내 기업인 링크스톤파트너스, 프리즘39, Play V를 포함한 총 130여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서울투자청은 포럼 기간 홍콩을 찾은 글로벌 기업과 일대일 미팅을 통해 서울시의 금융환경과 인센티브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선다. 또 서울투자청은 홍콩산업연맹(FHKI)·협회 등 홍콩소재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업계 동향을 점검하며 홍콩 소재 글로벌 기업의 서울진출 및 투자유치 수요 파악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는 홍콩 리갈 호텔에서 서울투자청 주관으로 '서울 핀테크 행사'가 운영된다. 아시아 금융 포럼에 참석한 투자자, 홍콩 핀테크협회, 핀테크 기업 등 서울진출 및 기업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를 초청해 자산관리,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서울투자청은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설 연휴기간 고속·시외버스 운행 늘린다

서울시, 18일~25일 증차 운행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에 고속·시외 버스를 증편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에서 증차 운행이 이뤄진다.

운행 대수는 평시보다 20% 증가한 2593대, 운행 횟수는 21% 늘어난 하루 704회, 수송 인원은 36% 많은 8만20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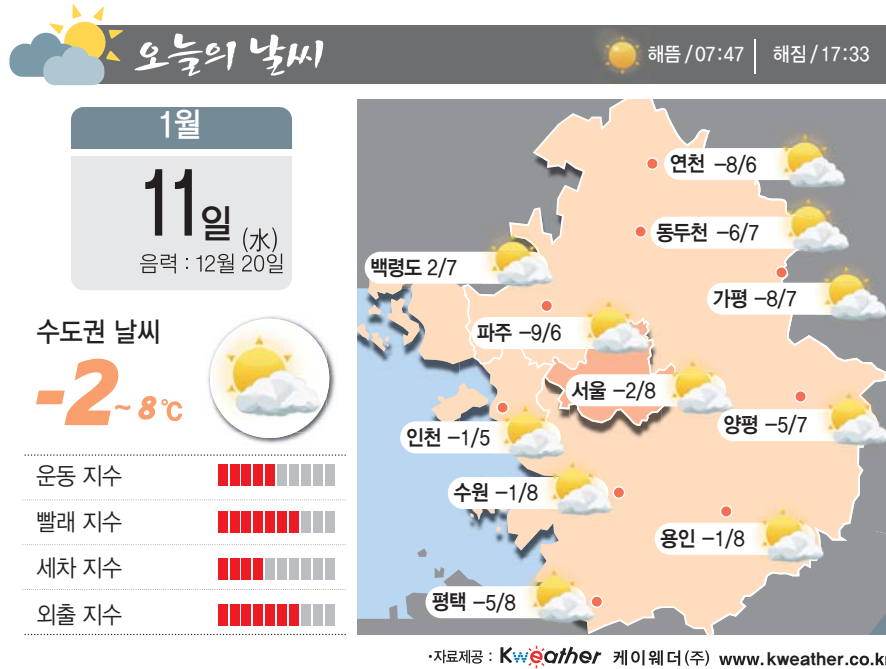
시는 코로나19에도 안전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 등 각 시설의 상태와 마스크 착용 같은 생활 방역 현황을 살핀다.

또 시는 안전 관리를 위해 시설물 파손 여부, 포장 파손, 안전시설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맞아 활발한 지역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연휴 전부터 선제적으로 시민 이동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통편을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바이든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개인사 무실서 발견
▲ 태국, 하루 만에 입국규제 강화 철회
... “접종증명 불필요” /사진 뉴시스

▲ 러시아, “참전한다면 우크라 편” 러 배우 수사 착수
▲ 일본인 46% “기시다 총리, 올해 상반기까지 사임해야”



▲ 美 캘리포니아주 홍수주의보... 일부 지역 대피령 /사진 뉴시스
▲ 美 오하이오도 ‘중 틱톡 금지’ 행정 명령



[라이프]
반값 메리트
편의점 점포간 택배
‘대박’
L1

metro[®]

Life

[바이오]
3년만에 열리는
‘유일한상’ 수상자에
김우주 교수
L2



연희궁 옆 작은 동산, 주민들이 사랑하는 ‘산림 휴식터’로

❤️ 되살아나는 서울

㉞ 서대문구 ‘궁동 근린공원’

서울 서대문구에는 궁과 인연이 깊은 공원이 하나 있다. 궁동 근린공원이다. 이름의 유래는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대문구에는 조선의 2대 왕 정종이 태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머물렀던 연희궁 앞에 자리한 탓에 ‘궁동’로 불리던 마을이 있었다. 서울역 사편찬원이 펴낸 ‘서울지명사전’에 따르면, 궁들은 궁동, 궁말, 정자말, 정자탈, 정자동으로도 일컬어졌다. 이에 궁동 근린공원의 명칭은 과거 이곳의 마을명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희시범아파트서 공원으로 재탄생

서대문구는 연희동 산118번지 일대에 있던 연희시범아파트 10개동을 허물고 산지형 근린공원과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2010년 10월 일반에 개방했다.

지난 9일 오후 궁동 근린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4번 출구로 나와 서대문04번 버스를 타고 9개 정류장을 이동해 ‘궁동 근린공원입구’ 정거장에서 하차하면 공원에 도착하게 된다. 이날 마을버스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앞자리에 앉은 노인에게 궁동 근린공원을 가리키며 “저 산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그는 “그냥 연희동 뒷산이여”이라고 답했다.

궁동 근린공원은 하늘 위에서 보면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다. 귀가 달린 부분에는 궁동산 정상과 정자가 위치했고, 코 부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입광장, 전망데크, 휴게시설 공간, 암석원, 산책로, 육각정자, 운동시설, 실내체육관이 차례로 들어섰다.

인왕산에서 안산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궁동산 산줄기는 안산 서쪽으로 서대문구청을 감싸고 모래내 남쪽으로 연해 최대 104.3m 높이의 산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104고지 지맥 남쪽에 옛 연희궁이 표기돼 있다. 궁동공원과 연결한 104고지는 인천상륙작전 직후 서울수복을 위한 격전지로 잘 알려졌다. 성산회관 뒷길로 50m가량을 올라가면 ‘해병대104고지전적비’라고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서대문구는 설명했다.

가장 먼저 궁동 근린공원 진입광장에서 출발해 서대문구 자활센터로 이어지는 코스를 걸었다. 초록색 솔잎이 달린 소나무들이 공원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맞았다. 푸른빛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소나무가 내뿜는 쾌청한 솔잎향은 계절감을 상실케 만들었다. 하지만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서 홀로 푸릇푸릇한 소나무는 마치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20대 청년 같았다.

산책로 곳곳에는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전망대가 설치됐다. 전망대에 서면 서대문구 연희동뿐만 아니라 북아현



연희궁 앞에 자리해 ‘궁동’ 이름 붙여
연희시범아파트 허물고 근린공원으로
산책로·전망대·실내체육관 등 조성

전망대 오르면 서울시내 전경 한눈에
쫄쫄한 나무계단에 부담 없는 산책로
도심 속 주민들에 산림 휴식 공간 제공

동 너머 중구 중림동·회현동, 용산구 용산동까지의 서울시내 전경을 한눈에 다 내려볼 수 있다. 이날 오후 미세먼지가 걷히자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서울타워’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산타워는 우주로 발사되길 기다리는 탐사 로켓처럼 하늘을 향해 쫓쫓이 서 있었다.

◆체력단련 장소로 제격

전망대에서 서울시내 경치를 감상한 후 등산을 하기 위해 궁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을 오르는 내내 까마귀가 ‘까악, 까악, 까악’ 울어대며 머리 위를 맴돌았다. 영역을 침범했다고 여겨 시끄러운 소리로 불쾌함을 표현하는 듯했다. 새 소음이 잦아든 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바람이 버건디색 손바닥 모양의 잎이 풍성하게 달린 나무를 흔들며 대자 단풍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파도 소리를 냈다. 산에서 들려오는 바닷소리에 귀를 쫓긋 기울이며 등산을 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는 나무 계단이 촘촘하게 설치돼서 인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도 부담 없이 산을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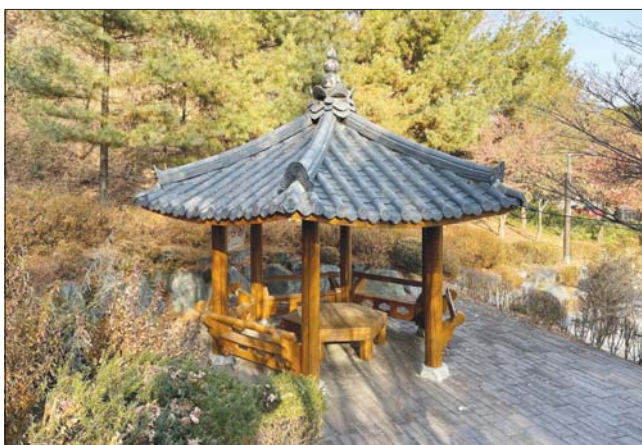
지난 9일 오후 찾은 궁동 근린공원 내 산책로와 궁동산체육관.
/김현정 기자

산 정상에는 정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람은 없고 누군가가 열심히 바닥을 훑치고 간 흔적이 돋보이는 새까만 걸레가 나무바닥을 나뒹굴었다.

정자의 양 기둥에는 타원형과 직사각형 모양의 거울이 걸려 있었다. 과거 산을 올랐을 때 정상에 정자가 설치된 곳에는 어김없이 거울과 함께 훌라후프가 각각 1개씩 놓여 있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서대문구는 “도심 가운데 위치한 궁동산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산림 휴식 공간을 제공해왔다”며 “오래전부터 궁동산 둘레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등산로가 지금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좋은 산책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궁동 근린공원에 위치한 정자.



궁동 근린공원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다.



궁동 근린공원 옆에 있는 서대문구 자활센터.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박항서 베트남, 신태용 인니 꺾고 미쓰비시컵 결승 진출
▲국내 심판 5명, FIFA 여자월드컵 배정...역대 최다 인원 /사진 뉴시스

▲이강철 WBC감독 “호주 리그 약하지만, 방심 안돼”
▲‘2701호 논란’에 입연 축구협회...“덜 어두지 않을 것”



▲김주형 골프 세계랭킹 14위...10위 도약 보인다 /사진 뉴시스
▲“전세계 수련생 1억명”...반크, 태권도 영문사이트 개설